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65호

Wednesday, August 20 2025 A

트럼프, 군 통수권 확실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차근차근 군 수뇌부를 교체하며 군을 확실히 장악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경질한데 이어 18일 데이빗 올빈 공군참모총장마저 사실상 해임했다.

올빈 총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임기를 절반 정도만 채운 채 물러나게 됐다.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과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연방 군인사법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임기는 4년이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기 전에 해임이 가능하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올빈 총장이 명목상 은퇴를 발표했으나,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백악관이 지난 주 올빈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받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의 새판짜기’를 바라고 있으며, 기존 군 수뇌부 사퇴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작은 사진) 덴 케인 합동참모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군 수뇌부가 중국 등 산적한 안보 현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안내심을 발휘해 이들을 지켜봤으나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MAGA’ 진영의 측근인물을 후임 의장과 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공군참모총장은 토마스 부시에르 공군 지구타격사령부(AFGSC) 사령관이 유력하다. 부시에르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략에 가장 잘 순응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4월 임명된 덴 케인 의장은 작년 공군 중장 계급의 CIA 부국장 대리를 마지막으로 전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취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일하며 ISIS 테러단체 수장 알 바그다디를 제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케인 의장은 군 내에서도 강경파로 통한다.

김옥재 기자

“대사관 주무관인데…범죄사건 알고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기승

조지아주 스와니에 거주하는 60대 송모씨는 얼마 전 워싱턴 주미대사관의 주무관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사기범에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은행 정보를 넘겨줄 뻔 했지만 다행히 피해는 입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 경에 생소한 전화(202-409-8404)를 받았다. 발신자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이라면서,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기에 맞다”고 하니, 그때부터 사기행각이 시작됐다.

이모 주무관은 “당신이 한국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으니 지금부터 내가 안내하는 따라오면 인터넷에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은근히 겁을 주었다.

그러면서 사기범은 모든 범죄 내용은 한국 검찰청에서 전자통신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 신분증이

없으면 미국 신분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이름, 생년월일,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상함을 느낀 송씨는 이모씨에게 까다롭게 질문을 이어가자 사기범은 “직접 한국 검찰청에 전화해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도 이와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주미대사관이나 한국 검찰·경찰청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와 김봉주 동포담당 영사는 “대사관이나 한국 공공기관은 절대적으로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중국, “한국 선박, 미국 작전 투입땐 위험”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를 두고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경고했다.

한국이 만든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군사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생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을 꼽으며 중국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은 세계 2위와 3위 규모의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자국 조선업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한·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T는 특히 앤디 김·데미 닉워스 미 상원의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방한 기간 한국 조선업체를 방문하는 것에 주목했다. GT는 “두 의원과 미 당국은 미 해군 비전투용 함정 건조·수리를 위한 합작업체 설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일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하고 싶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G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행동은) 한·일을 자국 방어체계에 끌어들려는 전술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호 기자

교육감 경호원 둘러싼 이념 논쟁 불붙어

TJ과학고·성정체성 문제 등
협박 사건 급증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교육감을 위한 경호원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이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청은 연봉 범위 8만4천달러~14만4천달러를 제시하는 구인공고를 게재했다.

보수 성향 단체와 주민들은 워싱턴 지역에서 “교육감 경호를 위해 거액을 지출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경비원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팬데믹 이후 교육감과 교직원에 대한 협박사건이 급증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TJ과학고 입시전형 변경과 성소수자 화장실 및 라커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됐으며 교육감 등에 대한 테러 위협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운티 교육청이 최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교육감 경호원을 채용하려고 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영주권 대기중 21세 되면 동반자녀 자격 상실

아동신분보호법 변경 영향
부모 먼저 받고 자녀는 대기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던 미성년자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만 21세’를 넘더라도 자녀(child) 신분 유지를 허용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제부터 자녀 신분 유지 기준은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이 아닌 문호가 열리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비자 승인 시점으로 변경됐다.

즉, 지난 8월 15일 접수분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 해도,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를 넘게 되면 성인으로 분류,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문호를 영주권 승인 가능일과 서류 접수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15일 접수분부터 영주권 승인 가능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1세가 임박한 이민 비



자 신청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됐다”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 가족 초청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동신분보호법(CSPA) 때문이었다.

USCIS는 이러한 내용의 CSPA 개정안을 지난 2023년 2월 발표했었다.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해 비자 승인 전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칫하면 자녀는 7~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USCIS 측은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규정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USCIS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 내 신분 조정과 해외 영사관 등의 이민 비자 신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서류 접수일’,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던 규정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저하 및 가족 이민 급감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언 구소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VA건강위원회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금지 결의

버지니아 주정부 산하 건강위원회가 생물학적 남성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강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여성 선수들의 정신적 혹은 육체

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여성 운동선수 3명이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위원회의 결의안을 3단계로 나눠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워싱턴지역 대형주택 전국 두번째

워싱턴지역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주택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부동산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에 실내면적 5천 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주택이 6만5300채로 뉴욕(8만1천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제력과 인구 등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전국 1위다. 3위는 LA(4만1200채), 4위는 시카고(3만

2600채), 5위는 달라스(3만6300채), 6위는 휴스턴(3만4400채) 등이다.

워싱턴지역 대형주택 평균 가격은 158만 달러로, 산호세(650만달러), 샌프란시스코(490만달러), LA(470만달러), 샌디에고(450만달러) 등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다. 전국적으로 대형주택은 137만채가 있었고 평균 가격은 144만달러였다.

ICE 건설현장 불법이민 단속 본격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워싱턴 지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ICE는 지난 18일(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급습해 15명을 체포했다. 체

포된 이민자들은 프로렌스 드라이브 선상의 이튼 스퀘어 아파트단지에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마스크를 쓴 ICE 요원 7-8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체포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VA 주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10월9일 확정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 진영이 10월9일 노퍽에서 TV 토론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예비 게일 스펠베르거 후보(민주)가 원석 얼-시어즈 후보(공화)를 5-7%포인트 앞서고 있다.

DC 주방위군 메트로전철역 순찰 강화

워싱턴DC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메트로역 근처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유니온 스테이션 등 모두 5곳의 역에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워싱턴 지역 메트로역은 모두 98곳으로, 이중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다운타운 도심 지역은 10곳이다. 주

방위군이 배치된 역도 모두 연방정부 관할지역이다.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주가 현재 6곳으로 늘어나 배치계획이 완료되면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옥재 기자

냉동 새우, 방사능 오염 가능성 리콜

월마트 판매 제품
세슘-137 양성 반응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마트서 판매된 일부 냉동 새우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연방식품의약품(FDA)은 세관국경보호국(CBP)로부터 주요 항구 4곳의 컨테이너에서 세슘-137이 검출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해본 결과 빵가루를 입힌 새우 샘플에서 세슘-137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BMS Food 회사 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은 ‘그레



이트 펄류 브랜드 냉동 생새우(사진), 로트 코드 8005540-1, 유통기한 2027년3월15일’를 비롯해 같은 브랜드 로트 코드 8005538-1 등이다.

FDA에 따르면 C-137에 양성 반응을 보인 새우 제품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 또는 보관되어 Cs-137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최근 월마트에서 문제가 된 그레이트 펄류 냉동 생새우를 구

입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처분하거나 반품을 권장했다.

Cs-137은 사람에게 급성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저수준 방사능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Cs-137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신체의 살아 있는 세포 내 DNA가 손상되어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21일(목)	75-63		24일(일)	82-65	
	22일(금)	81-61		25일(월)	82-61	
	23일(토)	83-67		26일(화)	78-57	

8월 20일(수) 84-6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BK Franchise, 커피·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트너 모집

“Ten Thousand·L’ AMI 브랜드 확장 가속화”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체인 H 마트의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BK Franchise가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텐 사우스(Ten Thousand)’와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 ‘라미(L’AMI)’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함께 성장할 가맹 파트너를 모집중이다.

“Ten Thousand”는 이미 뉴욕을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차별화된 스페셜티 커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텐사우전드는 고품질 원두와 세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투자 구조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가맹 파트너들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지역에서 신규 오픈을 준비 중이며, 뉴욕, 워싱턴, 매릴랜드, 조지아 등에서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대만, 베트남에서도 성공적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베이커리 브랜드 L’AMI는 프리미엄 디저트와 함께 한국 전통 제과 제빵의 깊은 풍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인숍(In-Shop)과 로드

숍(Stand-Alone) 두 가지 형태의 운영 모델을 제공해 가맹점주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열어주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빠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뉴욕, 버지니아, 하와이 등에서 5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뉴욕 그레이트넥 H Mart 내에도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라미는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 내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 가맹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BK Franchise 관계자는 “Ten Thousand Coffee와 Lami Bakery는 단순한 카페와 베이커리를 넘어, 미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열정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가맹 파트너들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문의
Ten Thousand:
franchise@10000coffeeusa.com
L’AMI:
franchise@lamibakerycafe.com
▶웹사이트
www.10000coffeeusa.com
www.lamibakerycafe.com

김윤미 기자

글로벌어린이재단 VA지부 월례회 개최

GCF총회, 9월 12일부터 14일

글로벌어린이재단(GCF) VA지부(회장 김남숙)가 8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월례회에는 모두 56명의 회원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김남숙 회장은 “회원 상호 간에 늘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모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주한인경찰협회(회장 로이 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강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인경찰협회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증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올림’ 크로마하프단은 공연과 함께 200달러를 기부했다.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윤영희 회원은 지난달 일반회원에서 평생회원으로 전



환한데 이어 300달러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지영 회원은 떡값 200달러 떡값을 기부했다.

또한 신입회원 김명희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숙 회장은 “특별히 밤새 음식을 준비해 준 장재욱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이날 모금한 식비 10달러를 전액 GCF에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GCF 버지니아 지부는 오는 9월 12일-14일 버지니아 타이슨스 힐튼 호텔에서 예정된 총회를 앞두고 29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모여 마지막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연방예산 감축 영향 서서히 나타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버지니아 경제가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지니아 의회 분석에 따르면 버지니아 총생산의 24%가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한다.

연방정부 총지출액의 1/7이 버지니아에서 이뤄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부의 버지니아 지

출액은 연간 1100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연방정부 용역 100대 기업 중 버지니아 지역 기업 해고 인원이 올들어 2114명에 이른다.

버지니아의 최근 실업률은 3.5%로 전국 평균 4.2%보다 낮지만 최근 보험세로 돌아섰다.

특히 북버지니아 지역이 받는 타격이

크다. 버지니아 대학(UVA) 웰던 쿠퍼 센터는 올 연말 실업률이 4.2%, 내년에는 4.6%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방정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의료부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57만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스탬프(SNAP)의 버지니아 할당 예산도 20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우리아메리카은행, TX 오스틴 지점 개점

우리아메리카은행(은행장 이태훈)은 지난 15일 남부 핵심 경제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 오스틴 지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오스틴지점은 ‘Lakeline Mall’ 근처 “H-E-B Plus”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오스틴은 IT,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국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을 비롯해 부품·소재·장비 분야 협력업체들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오스틴은 향후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오스틴지점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오스틴지점은 개점을 기념하여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송금 수수료 면제 쿠폰, ▲채권계좌 평잔에 따라 35bp 금리를 우대하는 Interest Up CD, ▲신용카드 스테이트먼트 크레딧, ▲스타벅스 쿠폰 추천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Woori Biz MM 45bp 금리 우대, ▲Woori Austin Promo CD 등을 제공한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1석5조 통합보험



5 i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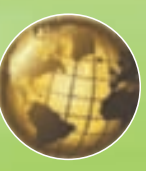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 버지니아 (라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 매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BTS 뷔·손흥민 시구… 다저스 티켓 불티

각각 25, 27일 경기에 등장
예매사이트 한때 서버 다운
한·일 최고 스타들 만남 기대

월드 클래스 스포츠 스타 손흥민과 월드 스타 BTS 뷔가 LA 다저스의 시구자로 출격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스타의 시구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사회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LA 다저스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뷔의 사진과 함께 “아미(BTS 팬덤) 준비됐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오는 25일 뷔가 시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7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고 게시글 공유도 4만회 이상 이뤄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뷔의 시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MLB와 다저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저스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LAFC의 손흥민 선수(오른쪽 사진)와 BTS 뷔의 시구 소식을 홍보하고 있다. [다저스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서 일부 아미들은 “뷔의 시구 경기 날 티켓을 사서 아미 파워를 보여주자”며 티켓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발렌시아 제이미 양씨 가족은 뷔의 시구를 직접 관람(직관)하려고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는 “딸이 BTS 팬인데 뷔가 시구한다는 소식에 반차(휴

가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 사용하는 것)를 썼다. 딸의 친구와 남편도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경기는 7시 10분 시작이지만 뷔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일

찍 입장하려고 반차까지 썼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다저스는 공식 SNS를 통해 27일 손흥민의 시구 소식(본지 8월 14일자 A·2면)을 알렸다. 손흥민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연습해야겠다”는 글을 남겨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손흥민의 시구 소식 발표 직후 많은 스포츠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손흥민과 오타니 쇼헤이의 투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다저스 한국인 선수인 김혜성과 한인 토미 에드먼(한국명 곽현수)과의 만남도 기대된다.

18일 오후 2시 현재 신시내티와의 3연전 일정 가운데 손흥민과 뷔가 시구하는 날의 홈 플레이트 근처 내야 좌석은 이미 전부 매진된 상태다.

송영채 기자

크레딧카드 과소비 사라진다

부채 급증에 자발 소비 억제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크레딧카드 소비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제공한 최신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섰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크레딧 카드 사용 증가율이 데빗카드보다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약 4년 만에 처음 감지된 변화로 크레딧카드

사용 자체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 상황 속에서 크레딧카드 발급과 사용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는 학자금 대출 상황 재개, 높은 카드 금리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도 발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좁히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신규 부채를 더 신중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크레딧 점수 집계 회사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수석 부사장 찰리 와이즈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소비자

들이 스스로 소비를 억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크레딧카드 소비는 초기에는 감소했으나, 여행과 외식 등 재량 소비가 회복되면서 2022년에는 데빗카드 대비 7배 이상 빠른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데빗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반면 크레딧카드 사용액은 5.65% 증가에 그쳤다.

또한 트랜스유니온의 분석에 따르면 연체율 하락과 함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 둔화는 소비자들이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인성 기자

카카오톡 이용자 10명 중 9명 대화창 배너 광고 “거슬린다”

“관심있어 놀러왔다” 4.1%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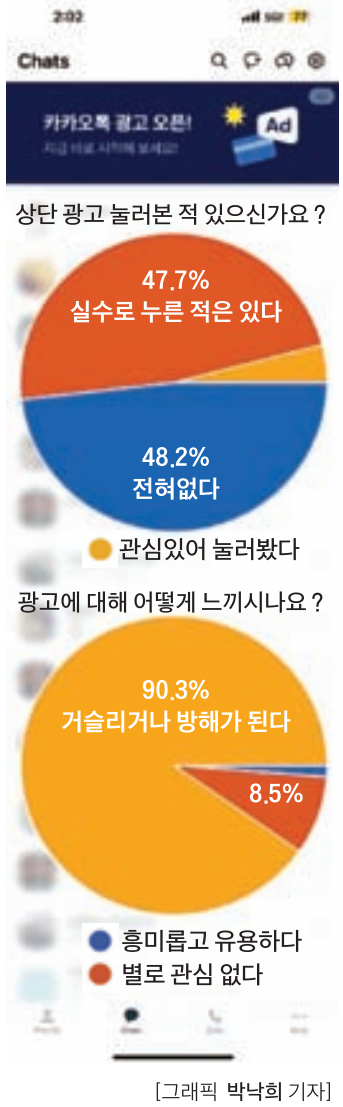
미주 한인들도 다수 이용하는 채팅 앱 카카오톡(Kakao Talk)이 최근 대화창 상단에 상업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광고 수주를 통해 게재되는 해당 고정 광고는 메뉴를 누르면 광고주 또는 제품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미주 중앙 일 보 가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카카오톡 광고를 보는 미주 지역 이용자들은 해당 광고가 아직 낯설고, 앱 이용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전국에서 총 640명이 참가했다.

먼저 ‘채팅창 상단의 광고 배너를 눌러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47.7%가 ‘실수로 누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게재 광고 내용이 관심이 있어 눌러봤다는 대답은 4.1%에 불과했다.

전체 화면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광고이지만,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광고 배치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90.3%)가 ‘(앱 이용에) 거슬리거나 방해가 된다’고 답했다. 또한 8.5%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해 거부감을 반영했다.

최인성 기자



“영락상조회 사태, 교회가 책임져야”

파산 위기에 회원들 반발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이하 영락상조회) 회원들이 상조회의 파산 위기 사태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원 대부분이 나성영락교회를 믿고 가입한 교인이라며, 교회 측이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총회원 표결 의견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제이 박씨는 “현재 94세인 어

머니는 나성영락교회 집사, 권사로 50년 이상 활동하며 LA한인타운 구역장으로 봉사에 앞장섰다”면서 “어머니는 나성영락교회를 믿고 상조회에 가입했고, 2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해 4년 전 1만5000달러 이상을 완납했다. 이제 와서 (파산보호신청 시)5000달러만 주겠다는 통보는 부당하다”고 영락상조회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비판했다.

영락상조회는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해 ▶완전 파산 신청(챕터 7-환급액 약

700~800달러) ▶상조회 정리 및 파산 보호신청(챕터 11-장례비 지원 기준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영락상조회가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회원들과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인 사회 대표 교회인 나성영락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인들은 교회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조회에 가입했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It's Okay,
with
Jesus!

트럼프 관세 전쟁에 ... 중국·인도 국경갈등 5년 만에 봉합

중국·인도 외교, 인도서 특별회담 미국발 관세폭탄에 양국 관계 개선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적극적인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두 나라를 양측에서 협력 관계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년 만에 인도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24차 중·인 국경 문제 특별대표회담에서 수브라마냐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 장관과 만났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인도 참배객의 중국 티베트 성지 순례를 재개했다”며

“중·인 관계가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과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28억 인구의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가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최근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를 인식한 듯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일방적인 괴롭힘이 만연하고, 자유무역과 국제질서가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28억 인구의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가 단결해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측은 평화적 관계 구축엔 국경 문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문제는 두 나라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이산카르 장관은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갈지는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달려 있다”며 중국군의 국경지대 철수를 요구했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에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면서 양국관계는 냉각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나 국경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로이터통신은 “5년 만에 국경 무역이 재개된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발미로 오는 27일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인도로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를 패상한채 중국과 빅딜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이후 인도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하며 중국과 대화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14일 양국을 잇는 여객기 직항 노선의 운항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양국 관계 개선의 방향성을 왕 부장의 인도 방문에 이어 이달 31일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CO 정상회의의 참석차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접견하고, SCO 정상회의의 의제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텐진 SCO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 정상외의 비공식 3국 회담 가능성이 있다. 자이산카르 장관은 “인도는 중국 SCO 정상회의의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브릭스 등 다자 메커니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진 기자**

‘프렌즈’ 매슈 페리 사망 사건... ‘케타민 여왕’ 결국 유죄 인정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 배우 고(故) 매슈 페리(사건)의 사망과 관련해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검찰청은 18일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제스빈 생거(42)가 연방 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거는 마약 관련 시설 운영 1건, 케타민 공급 3건,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초래 1건 등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거는 할리우드 일대에서 이른바 ‘케타민 여왕’으로 불렸다.

검찰에 따르면 생거는 마약 거래 알선책인 에릭 플레밍을 통해 페리에게 케



타민을 전달했다. 특히 페리가 숨지기 직전인 2023년 10월 케타민 51병을 판매했고 이는 페리의 개인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와마사는 사망 전날인 28일에도 최소 3차례 케타민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리는 이튿날인 29일 로스앤젤레스(LA) 자택 온수 수영장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인을 ‘케

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생거는 알선책 플레밍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플레밍에게도 사건 관련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이후 노스할리우드의 거주지 겸 거래처를 수색한 수사 당국은 메스암페타민 약알 1.7kg, 약산 케타민 79병, 엑스터시 정제, 케타민·코카인 가루 등을 압수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5명 중 의사 2명, 알선책 플레밍, 비서 이와마사 등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생거는 유일하게 부인해 오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죄를 받아들이고 검찰과 형량 협상에 들어갔다.

생거는 마약 시설 운영 혐의로 최대 20년, 케타민 공급 건당 최대 10년, 사망 초래 혐의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페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프렌즈’에서 ‘첸들러 Bing’ 역을 맡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2022년 회고록에서 “중독과 싸우는 고통”을 고백한 바 있다.

생거에도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 전에는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과다 투여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한영혜 기자



스페인 산불 ... 산티아고 순례길 일부 폐쇄

18일(현지시간) 스페인 오렌세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폭염으로 스페인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6개 주의 도로 15곳이 통행 차단되고 산티아고 순례길 일부 구간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짜퉁 ‘라부부’ 어린이 질식 위험” 경고

블랙핑크의 리사 등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올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기업 팜마트의 캐릭터 ‘라부부’의 모조품이 어린이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라부부의 모조품을 일컫는 ‘라푸푸’가 쉽게 부서지며 그 과정에서 나온 작은 조각들이 어린이들에게 질식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A. 펠드먼 CPSC 임시 위원장은 “이런 모조품은 위험하고 불법이며 미국 가정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사라”고 덧붙였다. CPSC 조사관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선적에서 라부부 모조품을 확인하고 제품 수천개에 대한 압수를 관련 당국에 요청했다.

아울러 CPSC는 모조품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했다.

먼저 큰 폭의 할인 상품을 모조품일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품 인형에는 홀로그램 팜마트 스티커와 공식 팜마트 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정품 라부부 인형의 경우 한쪽 발에 UV 스탬프가 찍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조품 인형은 지나치게 밝은 색상이거나 라부부 치아의 개수가 다르다고 했다.

현예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리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우크라 미군 주둔 원한 젤렌스키, 트럼프는 회피

미국·우크라 정상, 백악관서 회담
푸틴·젤렌스키, 2주내 답판 가능성
우크라 안전보장·영토양보가 관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 답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하에 추진된다. 성사되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첫 대면이 된다. 3년6개월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단 여부를 가를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 준비를 시작했다”며 “그 뒤 두 대통령과 저로 이뤄진 3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또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다자회담을 연이어 가진 다음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2주내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중재 외교가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종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①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②러·우 간 영토 조정 ③선(先)휴전론과 평화협정 추진론 간 이

견 극복 등 풀어야 할 과제의 난도가 여전히 높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양자회담, 유럽 정상들이 포함된 다자회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의 조건과 범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대·정보·장비 중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모든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무기·인력·훈련·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젤렌스키의 안보 요구 상한선은 미군 병력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19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 병력 수 무제한 확대, 향후 다국적군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안보 보장안으로 ‘나토 5조에 준하는 보호 조치’도 거론된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조항이다. 트럼프는 19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기존 입장을



트럼프 앞에 둘러앉은 유럽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유럽 정상들이 그 주변에 둘러앉은 모습이다. [사진 백악관 엑스]

재확인했다.

영토 조정과 관련해선 젤렌스키는 이날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그는 양자 회담에서 “영토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

에 동의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외교적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자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3자회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영토 조정 문제를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영토 양보 절대 불가” 입장과 견뎌보면 상당한 변화다. 단 우크라 안전보장을 전제했다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약 5만3000㎢)의 88%인 4만 6570㎢를 장악한 상태다. 러시아는 나머지 12%(6430㎢)를 포함한 돈바스 전체를 넘겨받으면 자국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수마·하르키우 일부 지역(약 440㎢)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선 양보하는 땅의 크기가 돌려받는 땅의 14.6배인 불리한 거래인 셈이다. 휴전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푸틴은 평화협정 일괄 타결론을 주장해 왔고, 미·러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도 이쪽으로 기울었다. 트럼프는 이날도 휴전을 하면 그 기간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결국 전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전 무용론’을 폈다.

하지만 다자 회담에서는 ‘선(先)휴전론’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다음 번 회담까지 최소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 휴전 없이 다음 회담 개최를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정상 입은 젤렌스키, 트럼프 맞춤형 설득

140조원 미국산 무기 구매 제안
점령지 표기된 지도 꺼내 호소도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정 정장을 입었다. 검정 카고바지에 전투화를 신은 지난 2월 회담 때보다 한층 격식을 갖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하면서 파국으로 끝났다.

반면에 이날 회담은 시작부터 복장 얘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정장 차림이 “정말 멋지다”고 치켜세웠고, 시종 그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젤렌스키는 벨라루스 트럼프 여사에 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시종 감사를 표했다. 약 1시간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젤렌스키는 총 12차례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1

40조원에 가까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했고, 러시아 점령지 비율이 표기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어떻게

든 영토 양보만은 막겠다는 간곡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노출했다.

그는 이날 EU 정상들과의 다자회담 직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푸틴은 나를 위해 협상에 나섰다고 생각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

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생중계 카메라가 촬영 중인 것을 모든 채 녹화된 방송사고였다.

미국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응한 종전 협상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돕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강태화 기자

“맞벌이 부부 추가 세금 없애자”…스위스 세제개혁 논란

“여성 경제활동 억제” 폐지 여론
보수 진영선 “세수 손실” 반대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폐지 논란이 뜨겁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의 한 부부가 결혼 시 부과되는 세금이 결혼 전과 대비해 연간 최대 4만 스

위스프랑(약 6883만원) 늘어나게 되자 혼인신고를 미룬 사례를 소개했다.

결혼 페널티 제도는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억제하고,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남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 과세 방안을 근소한 차이(101대 95)로 통과시켰다.

스위스 거주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통과된 방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기업과 보수 진영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204억원)의 세수 손

실이 우려된다”며 제도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2016년 국민투표에선 같은 개혁안이 부결됐었다.

다만 조세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사회 변화에 맞추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지난 20년간 스위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제도적 허점을 피해 부유한 부부가 은퇴 전 헤어지는 ‘세금 이혼’이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

만 진행하는 ‘가짜 결혼’도 늘고 있어 서다.

한지혜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변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단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8.15 광복 80주년 경축 (2025. 8. 25)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

1910년 8월 29일,
나라는 빼앗겼어도 민족은 영원하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45년 8.15 독립

방방곡곡에 대한의 태극기가 휘날렸다
1945년 이전 출생이신 80세, 90세, 100세대
독립의 산 증인들에게 광복의 쌀 증정합니다.

▶ 일 시: 2025년 8월 25일 (월) 정오 12시

▶ 장소: H-MART 버크점

9550 Burke Rd, Burke, VA 22015

▶ 문 의: 202-258-6384



버지니아 한인회 (V.S.O.K)
워싱턴 통합 노인연합회

회장 우 태 창



2025년도 기초 성령묵상회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이 잔치에 오셔서
성령으로 100% 충전하세요!

“초대합니다”

일시: 8월 28일 (목) 6pm~8월 31일 (일) 7pm

장소: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58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문의: 김경태 알베르토 (443)691-7938

김성인 카타리나 (330)327-0426

유연희 안나 (443)896-6568

주최: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사목회
성령 기도회



2025년도 성령 묵상회 일정

8월 28일 (목요일) 6PM - 9:4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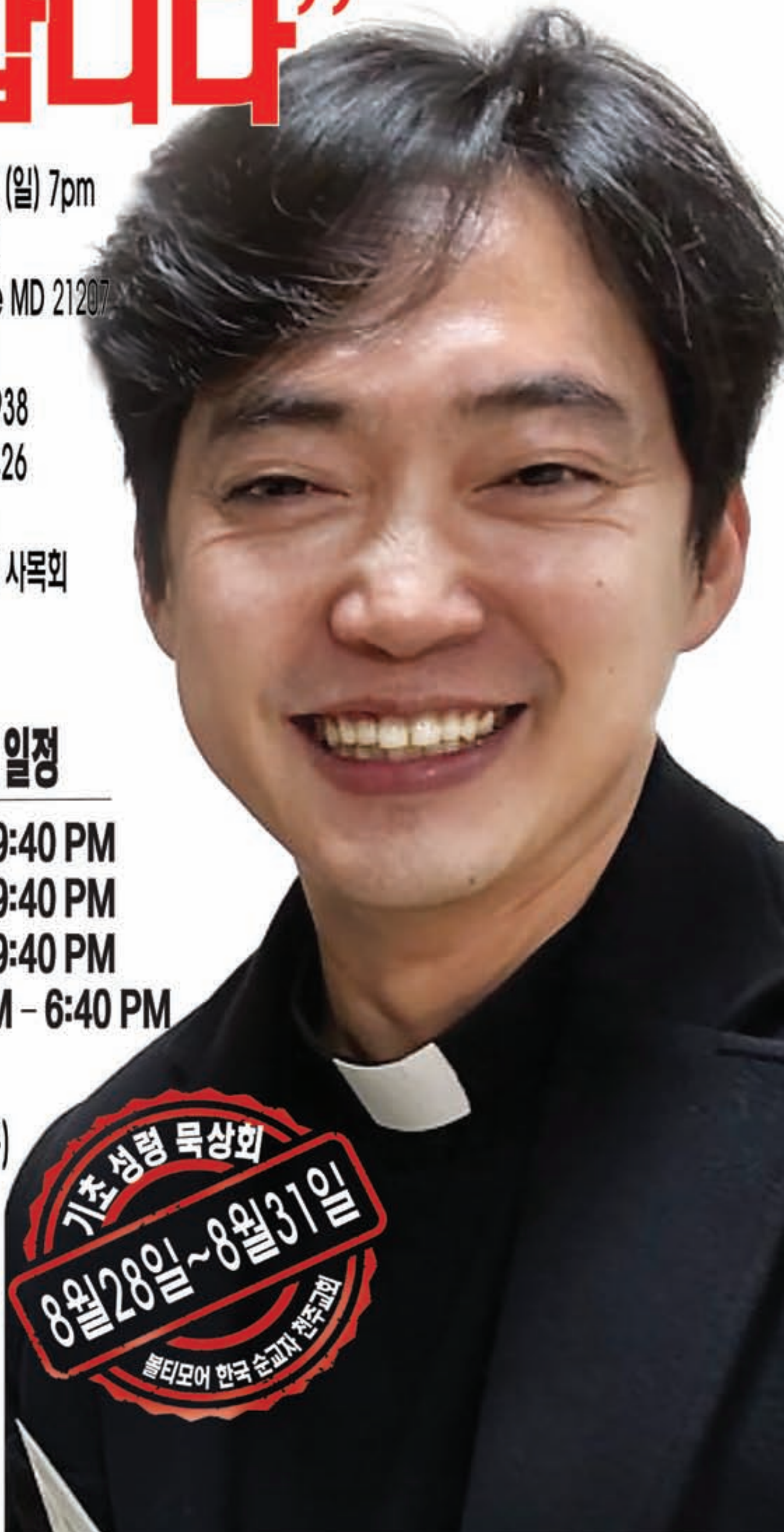
8월 29일 (금요일) 6PM - 9:40 PM

8월 30일 (토요일) 1PM - 9:40 PM

8월 31일 (일요일) 3:30 PM - 6:40 PM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소집자 정보		
소속/구분	소집자	비고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에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인천교구/교구 부서	사목사목국	부국(미국)



정성호,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지시…대검, 조사 착수

〈한국은행이 신권 공급 때 쓰는 지폐〉

건진 집에서 나온 5000만원 관봉권 남부지검 “띠지·스티커 실수로 버려” 현금 이동경로 추적할 단서 사라져 김건희 특검, 건진에 구속영장 청구

정성호 법무부장이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압수한 현금다발의 출처와 관련된 관봉권·시중은행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감찰을 포함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의도적인 수사 축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 지시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 전씨의 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나머지 현금 다발도 시중은행 띠지로 묶인 형태였다. 전씨는 당시 검찰에서 “사람들이 기도비를 주면 쌀통에 집어넣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표시가 된 돈통치. [연합뉴스]

한국은행 관봉권은 100장씩 띠지를 두르고, 다시 10다발(5000만원)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스티커에는 한국은행 발급국의 ▶발권일자

▶담당자 및 책임자 이름 ▶기기 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거액의 현금 추적에 단서가 된다. 다만 한국은행 발급 스티커는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지만 띠지는 사진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남부지검은 압수한 현금 중 시중은행 띠지도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 띠지에는 해당 은행 검수관 도장, 취급 지점 등이 적혀있다. 감찰은 뒤늦게 한국은행을 찾아가 관봉권이 흘러간 시중은행 등 경로를 파악하려 했지만 출처 규명에 실패했다.

남부지검은 “압수물 등록을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대검찰청에도 보고했

지만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200만원대 그래프 목걸이, 2000만원대 샤넬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혐의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공천 청탁을 이른바 ‘윤핵관’ 인사 등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진우·김정재 기자**

“한덕수, 위헌계엄 알면서 방조·가담”…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48일만에 피의자 신분 재소환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혐의도 특검 ‘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48일 만의 피의자 신분 조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의 사결정 등에 있어 모두 관여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국면을 겪은 사실에 주

목한다. 그는 노무현·윤석열 두 정부에서 국무총리직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내지·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엄 선포문’ 작성·폐기에도 관여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

했다. 특검팀은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위증)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중

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를 적용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다. 이런 내용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서 위증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들었으나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핵심 2인자라고 판단했다.

나윤채·김성진 기자

정부 “검찰개혁 신중히”여당은 “추석전 끝낸다”

검찰개혁 놓고 엇갈린 당정 전날 대통령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김민석·강훈식 “조율 충분히 해야” 여당은 “이미 수십 번 공론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19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

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당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

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공약에 대해서도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땀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개혁 속도보다는 추가 입법이 필요 없는 내실 있는 입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취지다.하지만 같은 날 여당 기류는 정반대였다. 문진석 원내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혁)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신중하게 속의해 개혁을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조수빈 기자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9/8 ~ 9/12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동부 로컬 투어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10/2 출발가능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899

9/3(수), 9/24(수) 출발확정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9/29,10/6 출발가능

추석 연휴 특선 버스 투어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10/6(월)-10/8(수) 확정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9/25(목)-9/28(일) \$950

가을여행 1

허드슨크루즈, 화이트마운틴 기차, 뉴포트,보스턴

3박4일 9/29(월)-10/2(목) \$1,099

가을여행 2

스모키마운틴

딕시시스템프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2박3일 10/24(금)-10/26(일) \$899

가을여행 3

버지니아 사파리 & 네츄럴 브릿지

당일투어 10/18(토),10/25(토) \$169

가을여행 4

한스맛집

NEW 한스 골프 투어

터키 안탈리아 골프 & 투어

2025년 11/9(일)-11/16(일) 7박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2026년 1/8(목),1/12(월),1/22(목) 출발 5박6일 \$1,790 항공불포함
4분이상 예약가능/연할투어

& 고대도시 페르게와 이스탄불 투어

2025년 11/9(일)-11/16(일) 7박8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오~ 필승 코리아~!!

U.S. Men's National Soccer Team VS SOUTH KOREA

VA to NJ 왕복 차량 서비스 and 팁 포함 9/6(토) \$84 (티켓 불포함)

VS

대형버스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2025년 가을 10/15(수)-10/25(토) 내륙일주 7박8일 \$2,390 전국일주(제주포함) 10박11일 \$2,9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항공 불포함 모든 옵션 포함!!

2026년 봄 4/11(토)-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맹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따바콘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바스생태공원 11/26(수)-11/30(일) **항공포함 \$2,090** 인솔자:세라정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 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 마감	09/14(일)-09/24(수)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 마감
10/10(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마감	09/30(화)-10/13(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4,890 2자리 가능! 마감
09/30(화)-10/07(화)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2,890 마감	10/06(월)-10/13(월) 크로아티아 7박8일 \$2,990 애나 김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마감 세라 정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26(수)-11/30(일) 맹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2,090 항공포함 세라 정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NEW 9박10일 \$5,190 SMALL GROUP TOUR 조앤 한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8박9일 인사이드 \$1,340부터 오션뷰 \$1,440부터 인솔자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3,590 재키 조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790 애나 김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04/28(월)-05/10(일) 그리스 섬 일주 12박13일 크레테 섬, 산토리니, 미코노스,낙소스, 아테네 재키 조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3,590 세라 정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조앤 한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05/24(일)-06/04(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2/23(월)-03/22(일) 남미 일주 27박28일 \$19,550	06/29(월)-07/12(일)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재키 조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5,490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BLUE TRAIN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 빅토리아 폭포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재키 조	08/17(월)-08/29(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8/12(수)-08/18(화) 알라스카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12(월)-10/23(금) 11박12일 포르투갈 & 스페인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 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선진국 맞춰야”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

순방 동행할 경제인 간담회에서 밝혀
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예정
경영상 결정에도 파업할 우려엔
구윤철 “정리하고 등으로 요건 한정”
경제6단체, 국회서 반대 결의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편으로 기업에는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계속 추진하되, 기업 규제 또한 철폐·완화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

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 추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건 실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 현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 주는 법안일 뿐이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노조가 마구 파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을 후유증을 미리 걱정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길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을 두고도 파업 같은 쟁의행위



대통령, 재계 만나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왼쪽부터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사진 대통령실]

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엔 “정리하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 등을 감안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전방위 설명에도 기업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

법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에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

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34분간의 면담 직후 “(법안을)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더라도 24일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오현식·김경희·나상현 기자**

법 통과 전인데… 10대 그룹 중 9곳, 이미 하청노조 타깃 돼

(노란봉투법)

**원청기업 흔드는 하청노조
반도체 웨이퍼용기 세척 협력사 노조
“협력사 임금체불, 삼성이 해결하라”
SK하이닉스도 고용 해결 요구 받아
기업 “이러다 1년내내 교섭만 할판”**

이재명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21~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시위와 파업, 소송을 벌이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중앙일보가 재계 10대 그룹(농협 제외)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SK-

현대차·LG·롯데·포스코·HD현대·한화·신세계 그룹 등 GS를 제외한 9곳에서 최근까지 주요 계열사 하청 노조가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원청 대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소송을 내는 등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에서 “이것만은 제외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노조법 2조 개정안).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용기를 세척하는 협력사 ‘이앤에스’ 노조는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6월 수차례 기흥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어 “협력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을’인 협력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

SK하이닉스 청주 팹 건설노조도 협력사 소속 노조원 150여 명이 해고된 건을 두고 하이닉스에 해결을 요구해 왔다. LG화학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조도 30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아 “진짜 사장” LG가 포괄적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LG는 “협력업체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한 화학업체 노사담당 부장은 “본사 정규직 강성 노조와

매년 협상하기도 버거운데 하청 노동자와 교섭까지 해야 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중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관련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만 현대제철·롯데백화점·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신세계면세점 등 5곳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한 1심에서 한화오션·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를 두고 “국회는 원청 교섭에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을 시행도 하기 전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재계가 노조법 2조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의 특징은 대형 생산 시설의 높은 생산성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고,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대형 조선소의 생산성 덕분이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원청 전문 인력과 단순 반복 작업을 맡은 하청 노동자가 협업해 고품질 제품을 빠르게 생산한 것이다.

김기환·최선을·나상현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러니 고민되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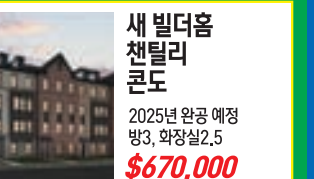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채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채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po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경보앱도 무용지물… 시속 100km 무궁화호 못 피해

〈열차 접근 때 울리는 경보〉

선로 작업자 2명 사망·5명 중경상
경북 남성현역~청도역 곡선 구간서
폭우피해 점검 하다 7분 만에 사고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에서 선로 주변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km 떨어진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 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기차가 전기기 관차라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이동할 때 철길이 아닌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원래 안전하게 노반에서 이동해야 하지만 선로 옆 자갈길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 현장을 살펴보니 철로 바로 옆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철로와 멀리 떨어져 걷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현장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하기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의 관계자들이 상행선에 열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사고가 난 하행선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옮기는 장면. [사진 청도소방서, 연합뉴스]



이송된 구조물 안전연구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가 접근할 때 울리는 경보 앱이 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경보 앱이 작동했지만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경보 앱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 중이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65명과 장비 16대,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사고 수습을 하는 한편 사상자들을 청도 대남병원 등으로 이송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이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관라·감독 소홀 등에 따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 2명은 모두 30대 청년이었다. 청도군의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만난 사망자 이모(37)씨의 모친은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다. 어떻게 보내느냐”며 오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정 대표는 “현장 안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김정석·백경서 기자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피해자들이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열차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유지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열차) 차단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가 난 구간이 곡선 구간이어서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도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지점은 커브 구간에서 120m 정도 떨어져 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시속 약 100km로 운행 중이었다. 열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급히 제동하더라도 완전 정지까지 열차 무게에 따라 700m에서 1km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열차가 작업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하고 급히 멈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열차 경적이 울리거나 충돌 소리는 듣지 못했다. 뉴스를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작업자 7명은 코레일 소속 1명,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6명이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45분 역장의 작업 승인을 받았고, 출입문을 통해 입장해 약 7분을 이동하다 열차에 치였다. 작업자들은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열차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10명 사상자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원인은 ‘스크루잭 임의 제거’

〈전도 방지 시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발표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검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다리가 쓰러지지 않게 임시로 받쳐주는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루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

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고는 교량 상부 대들보(거더)를 ‘런처’라는 운반 장비로 설치하고 이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크루잭을 거더 안정화 후 해제해야 했지만, 하도급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체했다. 사조위는 또 해당 장비는 애초에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하도급사가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수가 총 6명에 이른다”며 “영업정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대 1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10만원 훔치려다 20년 지인 흥기 살해한 60대…2심도 중형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흥기로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



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흥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0만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정세내 기자

여자친구 지인 성폭행 시도 “영상 유포 하겠다” 협박

여자친구의 지인을 성폭행 시도하다 흥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장면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흥기로 몸을 찔렀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내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상담분야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여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여긴 갈 수 있는데, 저긴 왜 안돼”… 반려동물 가족 혼란

반려동물 출입 규정 업체마다 달라
관계자 “식품매장 위생 등 고려한 것”
일각선 “직원조차 규정 제대로 몰라”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주부 허모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반려견 유모차’를 마주쳤다가 깜짝 놀랐다. 허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얼굴을 내놓고 크게 짖어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며 “어린 딸을 물기라도 할까 봐 황급히 매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다. 그러나 각사 또는 같은 업체라도 개별 영업장마다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방침이 달라 혼란이 빚지고 있다.

19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한 방침이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여부와 방식 등은 개별 업체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유통업체들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방침 자료: 각 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허용 여부와 조건: 불가	5kg 미만 펫모차·캐리어 이용 시 허용	캐리어·케이지 이용 시 허용
입장불가 매장: 전체	식품·식음료	식품·식음료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펫모차·캐리어 이용 시 허용(맹견 제외)	펫모차·캐리어 이용 시 허용(맹견 제외)	펫모차·캐리어 이용 시 허용(맹견 제외)
식품·식음료·아동	식품·식음료 등 일부	식품·식음료 등 일부
스타필드	롯데 백화점·롯데몰	스타필드마켓 동탄점
목줄·펫모차·케이지 이용 시 허용	펫모차·캐리어 이용 시 허용(맹견 제외)	5kg 미만 펫모차·케이지·캐널 이용 시 허용
식품·식음료	식품·식음료 등 일부	키즈그라운드 등 일부

최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마켓’ 동탄점은 점포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했다. 뒷개가 있는 펫모차(반려동물 유모차)·케이지 등에 든 5kg 미만의 반려견·반려묘는 입장할 수 있다. 쇼핑몰 ‘스타필드’에선 식품·식음료 매장 외엔 목줄만 해도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

같은 신세계그룹이지만 이마트와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는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출입을 전 점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품

매장 위생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또 다른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펫모차·캐리어 등을 이용하면 식품·식음료 매장을 빼고 출입이 가능하다. 현대·롯데·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 4사도 식품·식음료 매장이 아니면 반려동물을 펫모차·캐리어에 넣고 뒷개를 닫으면 허용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동반 출입을 환영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한다. 업체마다 방침이 제각각인 데다 안내

문구가 제대로 없는 매장이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45)씨는 지난달 반려견을 펫모차에 넣어 대형마트에 데려 갔다가 직원이 막아 실랑이를 했다. 그는 “나중에 알아보니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며 “직원조차 규정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펫티켓 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크다. 반려견 캐리어의 뚜껑을 열어 놓거나 꺼내서 품에 안는 등 규정을 어겨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라’는 민원과 ‘출입 방식 제한을 풀라’는 민원이 딱 반반씩 들어온다”며 “많은 사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집객해야 하는 유통업체로서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식당·카페에서 반려견 출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식당·카페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은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하지만 6월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시행되면 식당·카페에서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동물 전용 의자와 조리장에 칸막이 설치 등 위생·안전 기준을 지킨 업소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관련 시범사업 결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반려동물 동반 방침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는 관련 제도의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운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펫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전공의 파업 의정갈등에 세금 3813억 썼다

비상진료 인력 당직수당에 1996억
각종 소송대응 법률 자문료도 6억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정 갈등 사태로 예산 3813억32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앙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3813억3200만원을 집행했다. 예기치 않은 의·정 갈등에 복지부는 예산 이·전용(약 2000억), 예비비(약 1800억)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예산 대부분은 대규모 전공의 파업

에 따른 대체 인력 인간비로 활용됐다. 지난해 3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군인관·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이 국가 예산으로 매겨졌다.

구체적으로 군인관 3068명, 공중보건의사 2023명에게 인간비 등을 지급하는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 수당’ 사업으로 총 268억9100만원이 집행됐다. 또 공공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추가 채용한 의료 인력에 대해 인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간비’로 1134억2200만원을 썼다. 별도로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수당으로만 1996억5600만원이 지급됐다.

추가로 채용된 의사는 1인당 최대 월

1800만원, 간호사는 월 400만원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률 자문료도 6억7600만원 지출했다. 지난해 2월 임현택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협박·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1년간 정부가 대응한 소송은 148건(국가소송 126건, 행정소송 21건, 헌법소원 1건)에 달했다.

김정재 기자

취재일기

‘고용’ 빠진 ‘노동부’? 어려운 외부 노동시장도 챙겨야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 그러나 김영훈 장관 취임 후 보도자료에선 ‘노동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약칭이 변경된 건냐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를 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노동부’로 불렸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고용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지만, 낙마와 함께 흐지

부지된 전례도 있다.

유독 고용노동부에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것은, 고용과 노동이 서로 다른 시선을 담은 정책 목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용은 청년 등 비취업자, 즉 외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노동은 일자리의 질과 근로환경 등 이미 취업한 사람들의 내부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될 때는 고용부로, 노사 문제 해결이 중시될 때는 노동부로 불리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명칭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름

변경에 힘을 싣는다.

이번 호칭 논란은 새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실제로 약칭에서 ‘고용’이 사라지는 것처럼 정책에서도 고용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과제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6개 핵심 과제 가운데 고용 관련 항목은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1건 정도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실천과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6개월 이상 재

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 내부 시장 강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

한 전문가는 “청년 정책 등 고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새로운 내용도 없고 고용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비취업자가외부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과 노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

년연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 근로자와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노란봉투법 또한 해고노조 활동 등에서 이미 고용된 내부시장과, 그 여파로 채용 기회가 제약될 수 있는 외부시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고용’ 역시 고용노동부가 피할 수 없는 책무다. 불가분의 관계인 고용과 노동에서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김연주 경제부 기자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외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8350 Greensb, McLean, VA	UNDER CONTRACT	\$445,000	바이어가 막 원하는 조건의 집	NEW
	8512 Pine Spr, Severn, MD	UNDER CONTRACT	\$650,000	2.75% 군인 용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임이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6110-A Hoskins, Centreville, VA	SOLD	\$480,000	손님이 막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경쟁에서 이김.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NEW
	1631 Cecile St, McLean, VA	SOLD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를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 오픈할 필요 없음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OLD	\$1,315,000	여러 오피 경쟁 뚝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신 있음.		
사업체 매매	델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창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윈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볼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월 말-12월 말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EW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NEW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NEW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할 때는 사임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NEW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3년 NEW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NEW	사랑하는 교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NEW	\$2,200 2층 4인용, 방 3, 화장실 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보수 이념 사라진 국민의힘 ‘윤 어게인’이 채웠다

원칙·전략·가치 ‘3무’ 국민의힘
3%룰·의대 정원 논란에 우왕좌왕
영남 의원 “나도 당 핵심가치 몰라”
부정선거 음모론·윤 어게인 거론만
전문가 “새 어젠다·쇄신 노력 실종”

지난달 2일 ‘3%룰’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전 그 자체였다. 더 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3%룰 확대 적용을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도는 상황에서 열린 협상에서 강하게 저항할 줄 알았던 국민의힘이 덜컥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민주당 안에 재계는 국내 상장사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었다.

협상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뛰어내릴래, 맞아죽을래’ 하길래 번개탄 마시자는 심정으로 협상했다”며 “107석 야당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경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3%룰을 내렸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통과는 일단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의석수를 탈 것 게 아니라 원칙과 전략이 사라진 당 상황을 맞아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에 제시할 플랜B, 플랜C까지 미리 마련해 협상하고, 안 되면 여론전이라도 세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 페이스에 계속 끌려다녔다”고 지적했고, 영남 지역 의원은 “결국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한길 유튜브로 물린 당원들
※8월 14일 오후 2시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당시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

국민의힘TV **약 2000명**

전한길뉴스 **약 6000명**



원칙·전략·가치 부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미 보수 진영의 고질병으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에 কে케적 타격을 가져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란 때도 그랬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증원 카드를 꺼냈을 때만 해도,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다음 카드에 이목이 쏠리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을 강한 톤으로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선 “공포스럽다”(3선 의원)는 우려가 터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

이’ 등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패닉에 빠졌다. 한 충청권 의원은 “지역구에선 곡소리가 났고 내 멘탈(정신)도 터졌다”고 했다. 정책 제안해도 “용산똥” 당내선 쉬쉬 그해 8월 한동훈 전 대표가 용산에 꺼낸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은 거부당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전 대표 대신 한 중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증원 규모 조정을 완곡하게 건의했지만 허사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야권 관계자는 “그 중진 의원은 당시 ‘씨알도 먹히지



1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브 전한길 씨. 2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3 지난 3월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적힌 배지를 모자에 단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의 모습.

않더라’며 허를 내들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왜 2000명이야 야만 하는지 알고 싶었다”며 “용산 관계자에게 하소연해도 ‘VIP(대통령) 뜻이다’ ‘의료계에 밀리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결국 우리당은 왜 2000명이야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규모를 줄이자고 나서지도 못했다”고 했다. 당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던 야권 인사도 “당이 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전혀 못 했고, 보수에 호의적이던 의료계만 등을 돌렸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련의 혼란은 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나 정책, 그리고 이를 대중에 어필할 전

략이 사라진 국민의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 당내에선 “나도 우리 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나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국민은 오죽하겠나”(영남 의원)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부터 ‘반(反)이재명’에 올인했다. 부산 지역 의원은 “이재명만 패려도 최소 40%는 가져가는, 간편한 정치 구도가 수년간 이어졌고 우리 당의 체질은 약화했다”며 “이런 빈틈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 어게인(Yoon again)’ 같은 구호들이 파고들었다”고 진단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당 재건을 위해 새로운 어젠다와 정책을 발굴하는 건 어렵지만 ‘부정선거로 우리가 졌다’거나 ‘윤 대통령 다시 데려오라’고 외치기는 쉽다”며 “문제는 이런 구호가 국민의힘 한복판에서 유폐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교수는 “2010년 한나라당은 10월 지방선거 패배 뒤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폐기, 인사쇄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당 담론을 꼬집은 냉철한 내부 지적이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공정’ 가치를 내세우며 가까스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딱히 새로 발굴한 어젠다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실용주의와 우클릭 등 새 상품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외엔 이렇다 할 어젠다 발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손국화·김규태·장서윤 기자

“길심 얻어야 당선 기대할 수 있어”... 보수 유튜버에 휘둘리는 국민의힘

(전한길의 마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월 4일)가 임박한 지난 3월 25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뜸 “개인적 판단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라고만 외치던 당 지도부가 선고에 대한 전망을 처음 공개한 장면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현재의 여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른 헌법재판소의 구

조”였다. 권 전 원내대표에 앞서 ‘현재의 구조’를 분석해 ‘기각설’을 보수층에 주입해 ‘여론’을 형성한 게 보수 유튜버들이다. 같은 달 22일 고성국씨는 “캐스팅보트 김형두 재판관이 보수 쪽으로 스텝을 옮기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다”고 불을 지폈다. ‘신의한수’ 신혜식씨도 다음 날 “현재 내부에서 (탄핵) 인용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선고를 미루고 있다”

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26일 “정미 재판관이 이쪽(탄핵 기각)으로 넘어와 3대5까지도 예상한다”고 기름을 부었다.

이후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급변했다. 줄곧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던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31일 회의에서 갑자기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이 유튜버들이 형성한 당심을 추종하게 만든 장본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꼽는 의원이 많다. 고성국TV, 이봉규TV 등은 윤 전 대통령도 즐겨 보던 채널이다. 당 지도부에 속했던 인사는 “대통령이 유튜브에 의존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의원들도 유튜브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며 “기각설이 완전히 빗나간 건 술자리에서 듣는 민심이나 정보도 결국 유튜브에서 시

작돼 돌고 돌아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의 ‘지침’이 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좌우하는 현상은 12·3 비상계엄 이후 두드러졌다. 6·3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은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당에서 내보내느냐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5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가 다음날 돌연 “탈당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647,000

방3/화2.2/차고1, End Unit
매우 관리 잘된 집, 편리한 로케이션

클리프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에이터
새지붕, New HVAC, New Thompson C 창문
Dream Home for You

페어팩스콘도

PENDING

\$235,000

방1/화1, 옷선하이 근처
넓은 공간, 수리한 집

매나사스 콘도

\$215,000

방1/화1/넉넉한 파킹, 굿로케이션
No Carpet, Newer HVAC
업그레이드 많이 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특점 Triangle 타운콘도

2014년 BUILT, 방3,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GARAGE, 고급스러운 스타일 부엌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아일랜드,
Wood Floor, New Paint, New Deck

\$429,900



특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55,000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Sold

특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깝음

\$71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금너머로 넘어오면

“금 너머로 넘어오지 마!” “너야말로! 금 넘어오는 건 다 내 거야.”

초등학교 시절 짝꿍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 있다고 추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학기 초 아웅다웅하던 사이가 학년이 끝날 무렵이면 단짝이 되던 그 시절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짜꿍 간 대화에서 ‘너머’와 ‘넘어’가 번갈아가며 쓰여 있어 둘 중 하나는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너머’와 ‘넘어’는 모두 바른 표현이다.

‘넘어’는 지나가거나 건너는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 ‘넘다’를 활용한 단어다. “버스는 강을 넘어 시내로 들어왔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났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넘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로,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이나 그 공간을 뜻한다. “뒤뜰 돌담 너머 붉은 지붕 건물이 우리 집이다” “고개 너머 읍내에 5월마다 장이 들어선다” 등처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산 넘어 산’과 ‘산 너머 산’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넘어’와 ‘너머’ 둘 다 가능하지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산 넘어 산’은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힘든 일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한다. ‘산 너머 산’은 ‘산 저편의 산’이란 뜻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세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다음 타깃은 아시아계

이무영
뉴스룸 에디터

하지만 아시아 출신 불체자도 약 1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한국 출신은 17만3000 명으로 추정된다. 라틴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 차례가 아시아계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단속의 방식은 공포전락 그 자체다. 연방 법원이 “인종·언어·직종·장소에 근거한 단속(인종 프로파일링)은 위헌”이라며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속국(ICE)은 홈디포 주차장, 세차장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라틴계 커뮤니티 길거리를 순찰하다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바로 체포하는 ‘로빙 패트롤(Roving patrol)’도 등장했다. 심지어 이민법원 복도까지 들이닥쳐 불심검문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마구 체포한다. 체류 심사를 받으러 이민법원에 출두한 서류미비자들을 기습 체포하는 ‘코트 앰부시(Court ambush)’는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나 외국인 합법체류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

아 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불신검문을 예고한 것이다. 영주권 소지 의무는 오랫동안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이를 다시 꺼내는 것은 길거리 단속을 합법화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경범죄"라는 딱지를 붙여 위법 근거를 확보하고,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포전략이 특정 인종·언어·직종·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틴계 일용직 노동자가 몰리는 홈디포 주차장 단속이 단적인 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시아계가 밀집해 사는 지역이나 일터가 차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잊고 있었다. “중범죄자만 추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공약은 “모두 추방”이었다. 다음은 공포의 칼끝이 아시아계로 향할 차례일 수 있다. 아시아 출신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로빙 패트롤’하고 불심검문할 수 있다.

한인사회는 대비해야 한다.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 단체들과 손잡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단속에 맞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포가 공동체를 침묵하게 만들 때, 역설적으로 무차별 단속은 더욱 쉬워진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불신감문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까 두렵다.

마켓 나우

제로 토크 퍼터가 쏘아올린 작지만 큰 공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특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 정도라면 알려져 있던 LAB골프의 상황을 뒤바꾼 결정적 계기는, 지난 6월에 열린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오픈이었다. J.J. 스펀이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20m에 가까운 퍼팅을 랩퍼더로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후 제로 토크 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LAB골프의 실적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L캐터톤은 성숙한 시장으로 여겨졌던 골프 시장, 특히 수익성이 낮고 교체 주기가 긴 퍼터 제품군에서 LAB골프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시각에서 차

발화된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최근 소비재 산업의 성공 공식을 충실히 따른 것도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다만 설립 7년 만에 완성된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K캐터톤의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한된 생산 설비로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지, 개별 맞춤 제작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속할 수 있을지, 글로벌 판매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차별화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외부 변수도 있다. 제로 토크 파터가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거나 대형 경쟁사들이 기술이나 가격 또는 마케팅에서 LAB골프를 압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M&A 시장 전체에서 보면 이번 인수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투자업계와 소비재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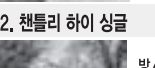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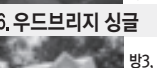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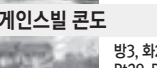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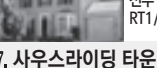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웃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5. 애난데일 싱글 Under Contract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토포그래피, 방3, 화3, 카운치1, 세차장, 드라이브웨이 (400차), 화실, 2,312sqft, 0.46acre, SOLD AS IS, 종내시서 보타 신원물이상 반질, 리모델링/투차 가져놓음, 395/236/495/95/66	10. 센터빌 벅타운 \$589,900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2. 챌틀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3. 던로링메트와인 콘도 Under Contract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 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1, 화1, 762sqft 2.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1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이 리프트 스타일 \$40K 업그레이드 (마리주방, 배너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교, RT267/50/26/607, 필라즈 공영	13. 렌트 매매/리스  1. 센터빌 \$3,200 2차고, 맥, 콜린빌 초등학교, 28/66/50/286 2. 애쉬번타운 \$3,500 전채마루, 2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 Wolf/Sab Zero 주방, 커넬싱 박스, 허드우드 바닥, 선불, 고급 조명 • 토포그래피 천장, 스프링클러 시스템 • 인클루시브먼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경수 시스템 •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맥키니 매나사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독재에 맞선 80년 광주, '민주주의' 대명사 되다

1980년 5월, 전국 대학가는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로 달아올랐다. 5월 15일 서울역에 30개 대학에서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모일 정도로 시위 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시위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다.

신군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울 중앙청에서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16일 오후, 무장 군인 600여 명이 회의장 안팎에 배치됐다. 중앙청의 전화선은 모두 차단됐다. 국무위원들은 헌병들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 입장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2005년 별세)조차도 훗날 회고록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할 만큼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했다. 안건 상정부터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단 8분. 계엄 당국은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2600여 명을 구금했다. 김대중은 자택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김영삼과 김종필도 각각 가택연금과 보안사 감금 조치를 당했다. 또 이날 저녁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대학생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학생운동 간부들도 모두 체포됐다. 학생 시위의 동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한편 광주에선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청 광대에서 '민주화 대성회'라는 시국 성토대회가 열렸다.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 등 대학생 2만여 명이 전두환 퇴진, 민주화 쟁취 결기대회에 나섰다. 대학교수 50여 명도 시가행진의 선두에 서서 학생들과 뜻을 함께했다. 5월 18일 계엄령 전국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사전에 행동지침을 공유한 학생 수백 명이 캠퍼스 앞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7개월 전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한 후 시작된 '부마항쟁'을 신군부는 기억하고 있었다. 광주 대학가의 학생 시위를 조기에 해산하지 않으면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시위 초기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해 강력 진압에 나선 이유였다.

비극으로 끝난 열흘간의 시민 저항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 사건이 터졌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광주 장악에 실패하고 외곽으로 물러났다. 광주 시내에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모여주세요."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시민군의 마지막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릴 잊지 말아주세요." 얼마 뒤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진입했다. 광주의 저항은 그렇게 끝났다. 10일 동안(5월 18~27일) 사망자 166명, 실종자 179명, 부상자는 2000명이상이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식 기록).

왜 하필 광주였을까. 5월 15일 '서울역 회군'과 이후 학생 지도부 체포 사태 속에서도 광주의 학생운동 조직은 상대적으로 견제해 시위 동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야당과 호남 정치의 상징인 김대중의 체포 소식은 학생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 당시 호남 지역 교육의 메카였던 광주는 '학생들의 도시'였다. 광주 인구 80여 만 명 중 14%에 육박하는 11만 명이 고교생과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5·18의 중심 세력이었다. 또 당시 광주·전남 지역 인구의 95%는 이 지역 출신이었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가 적다 보니 지역민 간의 공동체적 결속력이 유달리 강한 측면도 있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호남 차별과 소외에 대한 불만도 누적된 상태였다.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초기부터 투입된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 방식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명예를 찾고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숏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 시민들에게 잊혀진 '폭도'라는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80~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선 '광주 5·18'은 금기 단어였다. 5·18에 대한 시민들의 증언을 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는 대학가에서 '지하 베스트셀러'였다. 대학생들은 어둠의 경로로 전파된 5·18 비디오를 몰래 보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다. 5·18 과거사 규명 과정에서도 흥역을 치렀다. 1988년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대놓고 내세웠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문제로 논란이 컸다.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조사한 끝에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도 국가수사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문민정부 출범 후 5·18 명예회복 노력을 계속해 온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대해 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



전두환 정부 시절 '5·18'은 금기어 87년 민주화 항쟁의 마중물 역할

문민정부 들어 진상규명 본격화 특별법 만들고 국가기념일 지정



1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왼쪽)와 택시기사 김사복씨. 두 사람의 이야기는 '택시운전사'로 영화화됐다. 2 2000년 5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5·18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비에 분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단을 내려 신군부의 권력찬탈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997년 정부는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진영에 따라 광주사태 또는 광주항쟁으로 불리던 5·18의 명칭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법적·제도적으로 5·18은 명예를 회복했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도 이뤄졌다.

유네스코 '아시아 민주화에 기여' 평가

광주의 서사는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살아났다. 영화 '화려한 휴가'(2007)는 집단발포와 도청 진압까지의 과정을 대중적 스케일로 복원해 기억을 되살렸다. '택시운전사'(2017)는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린 독일 기자 힌츠페터의 시선을 통해 봉쇄된 도시의 '진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경로를 그렸다. 지난해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5·18은 다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한강은 "광주가 더 이상 특정 도시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공존하는 보편적 공간을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됐다"고 말했다.

5·18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4·19혁명이 '민간 독재'를 종식했다면, 5·18은 '군부독재' 퇴진의 시발점이 된 저항운동이었다. 훗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5·18은 유사한 독재정치의 경험을 한

광주민주화운동 주요 일지

1980년 5월 15일	대학생 10만여 명 서울역 결집
	민주화 요구 후 자진 해산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결정
	국회 봉쇄, 정치인 등 체포
18일	광주 전남대 등에서 학생 시위
	공수부대 강경 진압 시작
19일	광주 시위에서 첫 사망자 발생
21일	계엄군, 도청 앞 집단발포 후 철수
22일	시민군 결성하고 자체 치안 유지
27일	계엄군 광주 재진입
8월 6일	최규하 대통령 사임 발표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버스 등에 올라타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 유네스코가 5·18 기록물을 인권 분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다.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아시아 민주화와 냉전구조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때 국회 등에 출동한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5월 광주에서의 교훈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을 통수권을 빙자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비극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최근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야 모두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5·18의 아픔을 화합의 촉매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다. 83년 3월, 망명객 김대중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대에서 '민중의 한과 우리 세대의 사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중의 한은 원한이 아니므로 복수로 풀리지 않는다.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그리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5·18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지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보편적 역사성을 지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45년 전 5·18을 2025년 5·18로 되새김하는 이유다.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노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시 설

“졸속은 안 돼”…검찰 개혁 속도전에 제동 건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 분리 방향은 대선 공약에도 담겼고, 정부·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전제하면서도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영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별도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땀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언급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지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때부터 “추석(10월 6일) 밤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려드리겠다”고 공언해 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정 대표는 추석 전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의 상정을 서둘렀으나 대통령과 총리·대통령비서실장이 잇따라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

으로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론했다. 이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사 관련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지휘하는 기능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위를 총리실에 두는 방안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해서도 “민생 관련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총리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기자간담회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와 무관치 않다.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과 함께 언론·검찰·사법 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다 “야당과 야수도 하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강경 노선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총리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라며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지금처럼 당은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는 속도 조절을 말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 무엇이 진심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대국민 설득에 힘쓰면서 야당과의 대화 채널도 열기 바란다.

공론화 과정 거쳐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
국민 공감대 넓히고, 야당과도 대화해야

노란봉투법 강행 태세, 재계 절박한 호소 안 들리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호소가 절박하다. 국내 6대 경제단체 등은 어제 국회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 결정’만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더 불어민주당을 찾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불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산업 현장이 감당해야 할 충격이다. 노조법 2조 2호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면 노동쟁의가 크게 늘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는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10대 그룹 가운데 GS를 제외한 9개 그룹이 이미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와 시위에 직면해 있다.

노조법 2조 5호의 쟁의 대상 확대도 우려를 낳는다. 지금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지만, ‘사업상 결정’까지 포함되면 대규모 투자, 설비 확충, 인수·합병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질한·미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재계는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수용할 테니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멈춰 주거나, 굳이 강행하겠다면 1년간 법 시행을 유예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의 명분으로 ‘노동권 보호의 강화’를 내세우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약성이다. 노사분규 절반 이상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노무 대응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쟁의 발생 자체로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외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는 중이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엌칼부터 변압기까지 주로 중소·중견 기업 제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된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6조원에 달한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에 비 오는 데 우산까지 빼앗는 형국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노사 중립의 원칙으로 돌아가 재계의 합리적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재계가 호소하고 있는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상 결정의 쟁의 제외, 최소 1년의 시행 유예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 충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안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최교진이 장관이 되든 말든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일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등 온갖 의혹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후 24일 만인 지난 13일 최교진(72) 세종시 교육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뉴스를 듣고 든 생각이다.

솔직히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고령의 세종시 교육감이라는 프로필만으로는 실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학생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인성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인선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탄식부터 터져나온 건 점점 더 격화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 인재 전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재의 중요성이야 시대 불문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대격변기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큼 결정적인 데도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일부러 국민 화를 돋을 생각으로 이런 인물을 골랐나 싶을 정도로 그의 과거 행적은 심각했다.

오죽하면 전북교사노조위원장과 전북 교총 등이 나서서 “교육 현장에선 교감·교장 승진조차 배제되는데 지명만으로도 현장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한 음주운전 전력(벌금 200만원)이 사소해 보일 지경이었다. 교육자는커녕 상식적 인간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품위와도 거리가 먼 천박한 ‘탕탕절’(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 운운,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와 김경수 전 지사의 여론 조작을 “사법 살인”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모자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파렴치한 자녀 입시 비리까지 옹호, 북한 편들겠다고 46명의 전사자 등 100명 넘는 우리 군의 희생을 불러온 천안함 사건을 놓고 지속적인 음모론 제기…: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다.

정작 가장 한숨이 나왔던 순간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적을 속속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거꾸로 그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했을 때였다. 지명 바로 다음

날 중등 교사 출신이라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대학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대학을 혁신하겠다”고 답했다. 실소가 나왔다. 배고프면 밥 먹겠다, 졸리면 자겠다라는 얘기 아닌가. 인재·재원·혁신 같은 그럴듯한 단어 몇 개를 나열했지만 결국 아무런 전문성도, 비전도 없다는 자백처럼 들렸다.

문명 전환과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인물로 한국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나 걱정하다 문득 핵심은 최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미래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겠다”고도 했다. ‘과도한’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경쟁 체제 허물기에 찍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줄곧 “경쟁이 지나치면 약자가 고통받는다”며 경쟁과 능력주의에 대해 보여 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국민 화 돋우는 교육부 장관 인선
미래 인재 키울 고민 흔적은 없어
실패 딛고 성장한 중국 안 보이나

해 오지 않았다. 멀리 내다보고 그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데, 이런 인식으로 이미 저만치 앞서 가는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은 2021년 우쭈방(중국항공우주연구 본산) 출신 화이진펑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어 올 초엔 뛰어난 양자물리학자인 두장펑 저장대 총장을 교육부 차관(부부장)으로 발탁하면서 AI 등 미래 인재 양성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줬다. 늘 그랬던 건 아니다. 문화대혁명 때 대입시험 폐지(1966년) 후 실력 대신 추천으로 뽑는 공농병학원 제도를 도입했다가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로 국가적 퇴보를 경험했다. 1977년 “마지막에 평등하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능력주의 기반의 대입 제도(가오카오)를 부활한 덕분에 지금과 같은 고속 성장이 가능했다. 중국은 실패를 교훈 삼아 치고 나갔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담고객서비스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毎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효과적인 보청기 사용법

난청 방지 팬 치매·우울증 위험
AI가상음향 기술로 청취력 개선
사용자에 맞게 주파수 조절해야

귀로 들어온 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뇌로 전달돼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져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난청을 오래 방치할 경우 치매 위험이 최대 5배 높아지고, 우울증과 인지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청은 노안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현상이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듯 난청인에게도 원활한 청음(聽音)을 돕기 위한 의료기기인 보청기가 필요하다. 잘 안 들린다 싶으면 가급적 빨리 난청 진단을 받고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롭다. 히어링허브 서초본점 김광재 전문 청능사는 “난청으로 인한 청각 소실 기간이 길수록 재활 기간이 늘어난다”며 “보청기 착용으로 난청을 개선하고 남아 있는 청력을 보존하도록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청력 특성 따른 세밀한 피팅 중요
문제는 보청기를 끼더라도 만족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국내 난청 인구의 보청기 구매율은 17.4%며, 이 중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한 비율은 12.6%에 그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맞지 않는 피팅(소리 조절)’이 보청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

로 꼽힌다. 김 청능사는 “보청기를 처음 쓸 땐 소리가 울리거나 말소리가 흐리게 들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개인의 청력과 어음인지력(들은 말소리를 구분·이해하는 능력), 생활 패턴을 반영한 세밀한 피팅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실 보청기는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다. 개인별 청력 구조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피팅 과정을 거쳐야 만족도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은 소리 증폭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적응하기 쉽다. 지나치게 조절하면 오히려 말소리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 청능사는 “고주파 청력 손실이 두드러진다면 폐쇄감이 적고 고주파 대역을 올리기가 쉬운 오픈형이 적합하다”며 “긱속형 보청기는 환기구(vent) 설치와 주파수 조절로 울림 현상을 줄일 수 있지만, 저주파 청력이 좋은 사람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청기 기능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뇌 학습



■ 김광재 전문 청능사가 보청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김 청능사는 “보청기 피팅 과정에선 다양한 변수에 따른 소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히어링허브]

원리(심층신경망 기술)를 모방해 스스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의 소릿값을 도출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주변 360도 전 방향의 말소리와 소음을 구분하는 기술이 도입된 스위스 보청기 ▶4D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실시간으로 소리를 조절하는 덴마크 보청기가 있다. 이러한 AI 보청기는 난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음 속 대화’에 강점을 보인다.

히어링허브가 도입한 가상음향 피팅(VSE) 기술도 눈에 띈다. VSE는 식당·회의실·지하철 등 실제 생활 소음을 360도로 구현해 보청기 피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보청기 착용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청취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김 청능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1차 피팅을 한 뒤 소음 환경에서 추가로 조정해 보청기의 명료도를 높인다”며 “VSE는 특허 등록을 완료해 효과를 입증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도 늙는다”

실제 소음 환경 본론 가상 음향 시스템
피팅의 성공 여부는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전문가의 청각 전문 지식과 경험, 언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대부분 영어권에서 개발된 고주파 중심의 피팅 공식이 적용돼 있다. 국내 난청 환자가 이를 그대로 쓰면 한국어의 중·저주파 발음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김 청능사는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한국어를 특성을 반영해 중·저주파와 소리 균형을 맞추는 피팅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 구매 비용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도 난청일 경우 청각장애 등록 후 성인은 최대 131만원, 19세 미만은 최대 262만원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다. 김 청능사는 “보청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인율보다 피팅 성공률”이라며 “보청기는 사용자의 청력, 언어 환경, 생활습관을 반영해 실제 소음 환경에서 수차례 피팅을 반복해야 최적의 상태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경 기자

난청 체크리스트 ※3개 이상 해당하면 전문의 진전 권장

- ☐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해주지 사람이 불평한 적이 있다.
- ☐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 소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듣는 게 어렵다.
- ☐ 둘 이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
- ☐ 상대방 말을 이해 못 해 엉뚱한 반응을 한 적이 있다.
- ☐ 상대방에 대해 내용을 다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 ☐ 상대방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 ☐ 특정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다.
- ☐ 특히 아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나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3300억 세포 매일 교체되지만
뇌신경세포는 한 평생 그대로
뇌세포 손상 막아야 치매 예방
미세 플라스틱도 치매의 원인

누군가 나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매’라고 답할 것이다. 14년. 그 긴 시간을 치매와 싸우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아버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문득 문득 인지기능이 돌아왔을 때 아버님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과 공포는 세상 어떤 말로도 수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내 가족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적 부담의 무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았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간병하던 남편이 아내와 동반 자살을 택하는 것은 간병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삶을 유지할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지구촌 치매, 3초에 한 건골 발생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어 인지 기능 감퇴나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행동이나 운동기능도 손상된다. 전체 환자의 60~70%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이며, 파킨슨병이나 혈관질환 또한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기능 감퇴나 인격의 변화가 발생한다.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만 건의 신규 치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약 3초에 한 건골이다. 그렇다면, 치매를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 2021년,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론 센더와 론 마일로 박사는 성인의 몸을 구성하는 약 30조개의 세포 중 약 3300억개의 세포가 매일 교체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다. 혈액세포의 86%, 위장 세포의 12%가 매일 교체된다.

그러나, 뇌 신경세포와 수정체 세포

는 인간의 생애 동안 교체되지 않는다. 재생 불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뇌세포 손상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세포 손상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세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에 의해 손상된다. 첫째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다. 이 과정은 유해물질 고유의 독성 크기와 각 세포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대형건물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이 그 예이다. 둘째는,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성분의 공급 부족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다. 패혈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시 발생하는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이 대표적이다. 성인의 뇌 무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뇌세포가 소비하는 산소와 에너지는 신체 전체가

소비하는 양의 약 20%를 차지한다.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손실되는 조직이 뇌이다.

최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24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뇌·간·신장 조직을 분석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간과 신장보다 뇌에서 최대 30배까지 검출되었다. 건강인보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최대 다섯배까지 더 많이 축적되었으며, 주로 뇌혈관 벽과 면역세포에서 관찰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동태를 고려할 때, 미세플라스틱이 뇌세포를 직접 손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뇌혈관 벽에 쌓인 미세플라스틱이 혈류의 흐름을 막아 뇌세포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설득력을 갖는다. 미세먼지 또한 잠재적인 치매 유도 물질로 제시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결합한 수용성 성분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과 난분해성 입자의 폐포(허파꽂리) 내 축적에 따른 폐 기능 감소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포벽이 두꺼워지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간의 가스교환 효율이 떨어져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4년 중국의 한 연구팀은 총치 방지제·공기 청정제·살균제·방향제와 같은 가정용 생활용품을 빈번하게 사용한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생활화학제품이 치매를 유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임상시험 99.6%가 실패하는 치매

독일의 의사이자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1901년 한 여

성 환자의 기억상실 증상을 관찰하고, 1906년 그녀가 사망한 후 부검을 진행했다. 그녀의 대뇌에서 피질의 위축, 플라크, 신경섬유 엉킴, 동맥경화성 변화가 발견되었다.

그가 1907년 발표한 논문이 계기가 되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되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어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그 후, 전 세계 제약회사들은 이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99.6%가 실패로 돌아갔다. 급기야 20년 이상 확고했던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치매로 진단받기까지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 노출과 치매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범부처 간,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다. 치매 치료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의 과학적인 결정과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의료 AI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성 질환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환경을 통한 시민의 노출 저감과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공개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정부의 인센티브 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법과 규제보다 강한 것이 동기 부여에 의한 자발적 참여임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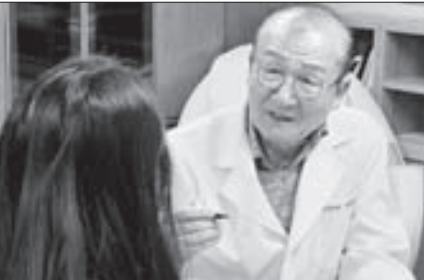
박은정 경희대의대 교수

‘당뇨 확률 2~10%’ AI가 분석하고, 의사가 상담한다

‘이건희 주치의’ 이종철 강남보건소장
유명 의학서적 두권, AI에 학습 시켜
“AI는 보조도구, 결정은 의사가 해야”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소장실. 예약환자인 30대 여성 A씨에게 이종철(76) 강남구보건소장이 건넨 첫인사다. A씨는 “지난 5월 출산했는데 임신 당시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다”며 “출산 후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I상담을 진행중인 이종철 강남구보건소장. 이 소장은 가족력과 의심 증상, 추가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임신성 당뇨가 흔한 일은 아니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결에서 상담 내용을 기록하던 보조 직원의 노트북 화면에는 ‘임신

성 당뇨 발병 확률 2~10%’라는 챗GPT 답변이 떠 있었다. 이 소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생기는 병도 아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보건소장의 인공지능(AI)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이 소장과 1대 1로 상담하는 동안 보조 직원이 챗GPT를 통해 분석 결과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 소장은 AI 답변을 토대로 전문적인 진단·조언을 덧붙인다. 구청은 유명 의학 교과서인 『해리슨의 내과학 원리

』『오늘의 진단 및 치료』를 학습시켜 이 범위 안에서만 답변이 나오도록 했다.

이 소장은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주치의를 역임한 소화기내과 권위자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지낸 뒤 2024년부터 강남구보건소를 이끌고 있다.

이 소장은 “교과서 두 권을 기반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내과 전문의로서 답하라’고 명령했다”며 “대학병원은 교수마다 전공이 달라 한 번에 다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AI로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며 충분히 대화하니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진료시간이 환자 1명당 2~3분 정도다보니 오진이 생길 수도 있

는데, AI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 50명이 AI 상담을 받았다. 고혈압·당뇨 환자의 처방전을 보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는 등 추가 검사와 진료 연계가 이뤄졌다.

AI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AI는 보조도구일 뿐,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미용·성형 솔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AI가 메울 수 있다. 창원원에서 가슴 엑스레이 판독에 AI를 도입했더니 하루 수백명 검진에서 문제 환자를 먼저 골라내 판독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채세진 기자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오늘 내 에너지 코인은 몇 개... ‘삼세번 체크’로 컨디션 관리

〈오전 1회, 오후 1회, 저녁 1회〉

아직 여름의 기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새 절기상으로 가을에 접어들고 조금씩 일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의 변화는 중요한 환경변수로서 사람들의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수준과 긴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목표수행의 도구로 소외시키지 않고 컨디션의 기복이 반복되거나 소진(burnout)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상 속 활동의 완급조절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

일조량 서서히 줄며 신체적·정서적 영향

오늘 나에게 느껴지는 에너지(신체적 인, 정서적인) 총량을 어떻게 양적으로 표현할지 생각해 본다. 예컨대 음식을 계량하듯 ‘몇 숟갈’로 가늠하거나, 동전지갑 속 금액을 계산하듯 ‘에너지 코인 몇 개’와 같이 가늠해 본다. 하루에 몇 차례 정도(예컨대 오전 1회, 오후 1회, 저녁 1회와 같이) 자신의 정서 상태와 신체적 활력/피로도를 관찰하고 자신에게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 총량을 가늠하여 표현해 본다.

즉 몸의 움직임은 잠시 멈추고 몇 차례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차분히 숨 쉬고,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관찰하면서 “지금 나의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보유 상태는 어떤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코인이 남아 있나”와 같이 점검해 본다.

이어 “지금 내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코인을 지출해야 하는 일

인가” “오늘 에너지 코인이 고갈되고 있어. 동전 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은 동전 4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될 것 같아. 일을 소분해서 진행하거나 도움 방안이 있을지 동료와 상의해 볼까” 하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표현해 보고 다음 시점에 이어서 진행할 활동의 종류와 양을 어떻게 조절할지 계획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하루 중 몇 차례 자신의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수준을 관찰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음에 이어서 수행할 활동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작업은 쉽지는 않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몰아붙이는 생각의 경향성이 종종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신체감각과 기분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외부에서의 요구나 스스로의 목표·기대에 따라 무리하게 활동 수행을 밀어붙이다 보면, 자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업무수행의 도

환절기 활력 유지법

병원 예약 1개, 회사 야근엔 4개...

활동마다 에너지 소모량 파악하기

사이사이 산책 등 충전 활동 배치

+, - 관리로 안정적 에너지 유지

구로 다루게 되어 자기소외가 발생하고 지침·소진·우울에 보다 취약해지게 된다.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경청과 공감 이 어려워지고 냉소적인 시각이 증가하면서 주변사람들과 물리적인 교류는 유지되더라도 스스로 내적으로는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고독감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지와 목적의식의 상승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소의 무리한 활동, 이어지는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고갈과 지침, 이어지는 자기비난·좌절감과 의욕 및 활동저하의 비효율적 순환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활동의 종류와 활동량의 완급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들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활동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오늘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해’ ‘지금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에 지지는 않겠어!’ ‘난 뭐가 문제일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오늘 다른 날보다 좀 더 활력이 느껴진다. 이 동안 최대한으로 노력하자’와 같은 생각들, 또는 계획된 일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자괴감·불안감 등의 감정들이 자신을 무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결국 지침으로 이끄는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면, 역지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또는 외면하려고 발버둥칠 필요는 없다.

대신, 지금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앉은 자세에서(혹은 서 있는 자세에서) 다시 허리와 등을 곧게 펴고 바닥에 디딘 두 발에 다시금 힘을 주어 발바닥에 맞닿는 땅바닥의 느낌을 확인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비슷한 속도로 숨을 내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몸이 하고 있던 일로 주의를 되돌린다.

오늘부터 적어도 1~2주 동안, 매일 내가 수행하는 주요한 활동(아침에 기상하기, 외출 준비하기, 상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기, 병원을 예약 방문하여 외래 진료받기 등)을 실천할 때 어느 정도 양의 에너지가 사용되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해 보자.

일정 세분화, 일 너무 몰리지 않게 해야

비슷한 활동이더라도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은 날은 에너지 소모가 적을 수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지친 날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좀 더 많아지고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나는 보통 어느 정도 범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지 파악하면 오늘 나의 활동 일정이 나에게 적절한지 혹은 과도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오늘 하루의 일정이 나에게 비교적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①이번 한 주를 구성하는 일정들을 일부 재배치하여 특정한 하루에 과도하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하거나 ②수행해야 하는 일을 보다 작은 단계로 소분하여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거나 ③혼자의 힘으로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협업을 시도할 수도 있다.

더불어, 신체적/정서적 에너지를 지출하는 일들 사이에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충전 활동들(취미활동, 잠시의 휴식, 산책, 운동 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하루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 나의 신체적/정서적 에너지 잔고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윤제연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교수

“5만불 내면 배아 IQ 알려드려요”

실리콘밸리서 유전자검사 성행

수퍼 유전자 계층 형성될 우려

실리콘밸리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IQ)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베이 지역

에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현황을 전했다.

업체들은 여러 배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IQ 예상치를 측정해 부모가 어떤 배아로 시험관 시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은 적게는 6000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에 달하지만, 베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수준이다.

업체 중 하나인 ‘뉴클리어지노믹스’의 창업자 키안 사데기는 WSJ에 “실리콘밸리는 IQ를 사랑한다”며 “(실리콘밸리 이외 지역의)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자녀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기보다 르브론 제임스가 되길 바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의대의 통계유전학자 샤샤 구세브 교수는 이와 같은 소위 ‘유전 최적화’ 현상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능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성취를 이뤘으며, 좋은 유전자를 보유했으므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각심을 보인다. 헵크 그릴리스 탠퍼드대 생명과학·법센터장은 “부자들이 수퍼 유전자를 가진 계층을 형성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노동자로 부

린다는 건 과학소설에서나 볼 이야기”라며 “이게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최고급 유치원에서 IQ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도 높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부모가 그런 도덕적 딜레마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WSJ은 설명했다. 다른 베이 지역의 한 커플은 업체로부터 IQ와 알츠하이머 위험 평가 등 다양한 예측치를 기재한 결과지를 받고, 스프레드시트에 이를 입력해 자신들만의 수식으로 산출한 수식을 토대로 배아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세라젬 Summer Special 놓치지 마세요!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청소년기 건강 평생 간다... 매일 1시간 뛰놀게 하자

〈유산소 운동〉

청소년기 건강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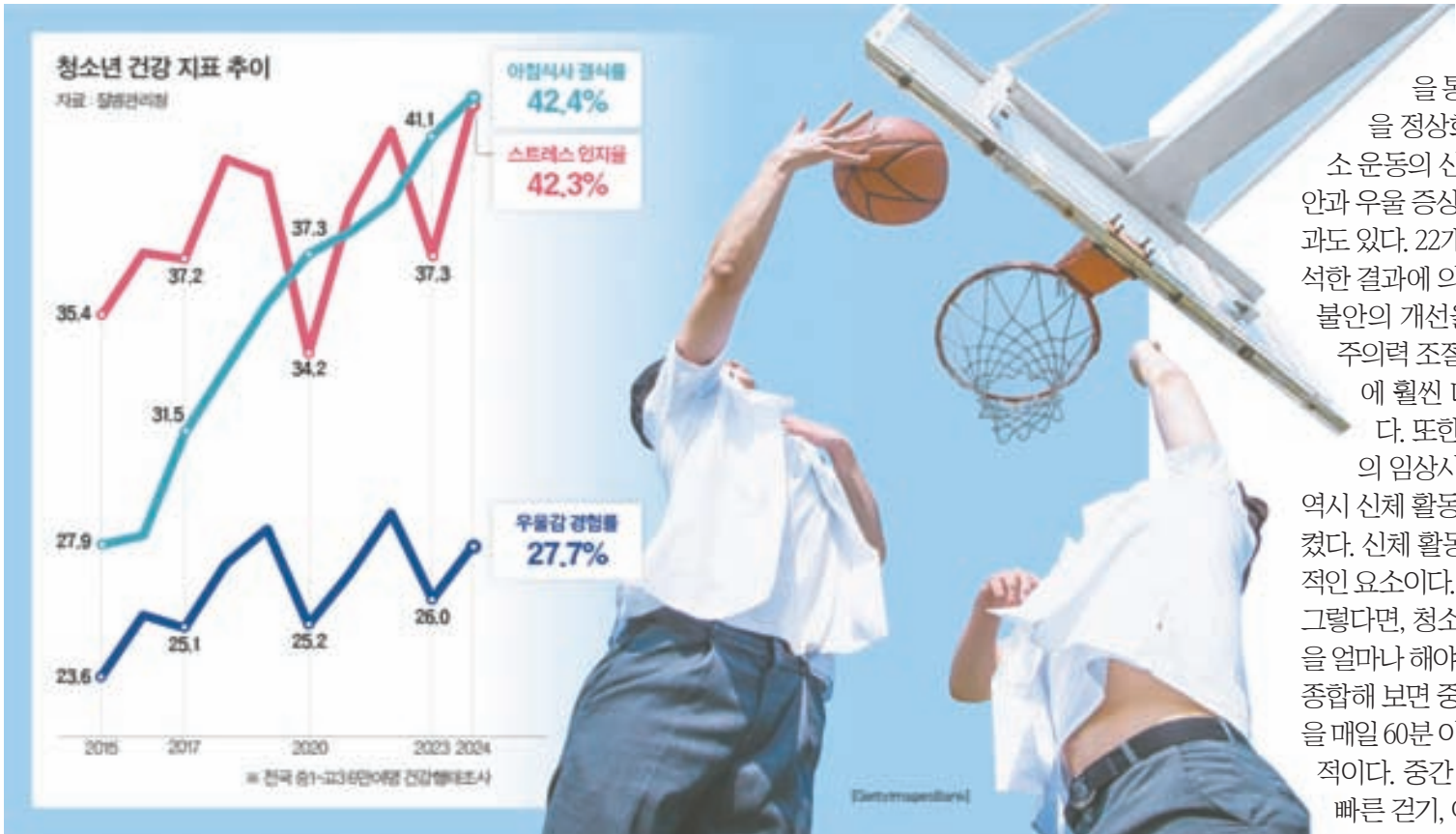
시간 아끼려면 격렬한 운동 주3일
질 높은 수면, 비만 예방에 도움
학습 주의력·집중력 향상 효과
“우울증 49%나 감소” 연구 결과도

어린 시절은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모든 부모가 관심을 두는 대학 입학과 취업만이 아니라 평생 건강에도 중요하다. 이 기간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이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성장이 빨라 세포의 수 증가도 급격히 이루어진다. 신체 활동 부족이나 비만·흡연·음주,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건강 습관이 청소년기에 형성되므로 성인기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이때 좋은 건강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 세포 수 늘어나는 시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고등학교 학생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주 5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 18.1~12.0%, 아침 식사 결식률이 23.7~26.9%, 비만 16.7~20.6%,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 이용률 55.6%로 심각하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실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에 따르면, 청소년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8.0%이다.

청소년기에 여러 건강 습관이 중요



질도 좋아진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수면 부족의 악순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유산소 운동의 신체 활동은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많이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22개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체 활동은 46% 불만의 개선을 보였다. 신체 활동은 주의력 조절 그룹과 비교해도 불안에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1540명이 참가한 18건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연구 역시 신체 활동이 우울을 49% 감소시켰다. 신체 활동은 학교생활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떤 신체 활동을 얼마나 해야 적절한까?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60분 이상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빠른 걷기, 야구, 테니스, 가벼운 자전거 타기, 배구, 배드민턴, 가벼운 수영, 대중 무용, 포크 댄스 등이 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격렬한 운동으로 주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달리기·축구·스쿼시·농구, 격렬한 수영, 격렬한 자전거 타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체 각 부위를 고루 포함해 근력 운동도 주 3회 이상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습관은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부모와 학교 등 사회 환경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라는 생각으로 자녀의 학업과 평생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자.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하겠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면 단연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신체 활동은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인터넷이나 TV 시청 등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등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증, 심각한 우울 등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신체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자.

신체 활동은 1.2배 더 자주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하다. 비만은 청소년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면 고혈압·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 관련 지방간 질환, 신장 질환, 암, 불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기는 지방 세포 수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비만으로 일단 지방 세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지방 세포 크기도 증가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실제로 청소년기 이후에는 거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은 청소년 시기에서도 만성 질환으로 간주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체 활동은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 신체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덕을 배울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38만6740명 포함한 18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 21% 더 높은 과체중의 피해가 있었다. 또한 신체 활동은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이며,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한다. TV 시청을 줄이며 인터넷과 게임 사용도 감소시킨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적당한 충분한 수면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심혈관 질환, 스트레스, 인지 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해지곤 해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면 수면의 양도,

건강칼럼

포괄적 노인돌봄 고민하자

노년내과 전문의는 의사 역할만 하지 못한다. 치매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최근 일을 기억 못 하니, 사회복지사처럼 가족에게 연락해야 했다.

진료실에서 역할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짧디짧은 진료 시간과 높은 환자 수는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보살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으로 다가갈수록 더 큰 소진이 찾아온다. 그래서 노년내과 전문의에게는 언제나 함께 일할 좋은 팀이 필요하다.

양로병원에서는 이런 팀이 소중하다. 헌신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어르신 한 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양로병원이나 요양시설을 ‘가면 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돌봄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선택지처럼 내몰리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로한 어르신들을 팀으로 포괄적으로 돌보되,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스탠퍼드 노년내과 전문의

과정 시절, 통합 노인돌봄인 ‘포괄적 노인의료 서비스(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이하 PACE)’가 우수성을 경험했다.

어르신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검안 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돌본다. 감기 같은 사소한 문제든, 낙상 위험 같은 큰 문제든 의료진이 상주하니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동이 필요하면 오랫동안 환자의 몸을 잘 아는 물리치료사가 바로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

의료만이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양 상담, 약물 관리, 치과 치료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어르신 한 분을 위해 여러 직종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며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팀 기반’ 돌봄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돕는 데 있다.

사실 PACE의 뿌리는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이민자 사회에서

시작됐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기 싫은 마음이 모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마음은 우리 한인사회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 “나 요양병원은 싫다” 하시고, 자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다. 다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자녀는 낮 동안 일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챙겨야 한다.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노년의료는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팀과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PACE는 바로 그런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이런 통합적 돌봄을 더 많은 어르신, 더 많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임영빈 내과/연세메디칼그룹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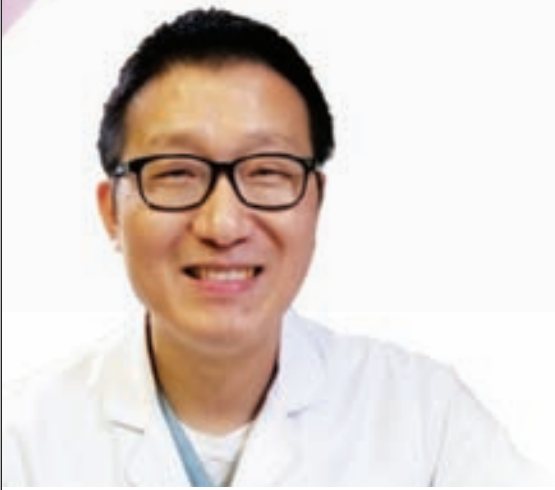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조기 은퇴 하려면 의료비 대책 꼭 필요

연방정부 보조금 확대 종료
오바마케어 15% 인상 전망
로스·고수익 예금계좌 활용
자산 미리 매각 세금 줄여야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오바마케어 중간값 기준 인상률이 15%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보건정책기관 피터슨-KFF에 따르면,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은 최근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주는 3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터슨-KFF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50~64세 가입자의 51%가 지원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확대 조치 종료다. 여기에 의약품 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가입 연령인 65세 이전에 은퇴하려면 의료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59.5세 이상 조기 은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로스 IRA를 인출해 과

세 소득을 낮추는 선택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로스 계좌는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기 인출해 의료보험료 절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은퇴 전에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면 소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63세에 은퇴할 계획인 경우, 2년치 생활비를 고수익 예금계좌에 비축해 두면 인출 시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세금이연 계좌를 당분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은퇴 전에 자산을 매각해 은퇴 후 자본이득세 발생을 줄이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근무 시기에 적립한 건강저축계좌(HSA)가 있다면 조기 은퇴 시 의료비를 세금 없이 지출할 수 있다. HSA와 과세 계좌를 병행하면 소득을 낮춰 보조금 소득 기준에 맞추기 용이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을 5000달러만 줄여도 보조금 혜택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주로 이주하는 조기 은퇴자는 옮기려는 주의 오바마케어 보험료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 은퇴는 꼭 하고 싶는데 메디케어 전까지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몇 년간 여가성 소비를 줄이거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스트레스 낮은 저임금 직종으로 전직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만하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퇴 직전 나이에 의료보험 없이 지내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 마켓플레이스 이용이 복잡하



오바마케어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기은퇴를 계획하는 이들은 의료비 지출을 잘 준비해야 한다.

다면 보험 브로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도 병원·의사 네트워크와 복용 중인 약품의 보장 여부, 응급 상황·네트워크 외 진료 시의 공동부담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상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들

은 보험 플랜 선택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의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세액공제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에 실패하면 기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은 이전처럼 연방 빈곤선의 400%인 1인 기준 약 6만 2000 달러가 된다. 이 소득을 넘으면 기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재의 확대 세액공제에 따르면 보험료는 소득의 8.5%를 넘지 못한다.

안유희 객원기자

베이비붐 세대 401k 인출에 주가 하락 우려

일부서 ‘위험 떠안나’ 불안감
“누군가에게는 상속” 반론도

하루 1만1000여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나이에 도달하면서 401(k) 퇴직연금 인출이 본격화하자 일부 젊은 투자자들이 “누가 마지막에 위험을 떠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레딧의 투자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401(k)에서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면 자산 이동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며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밀레니엄 세대나 X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매도 물량을 떠안는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표 참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이용자들은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2011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년 동안 은퇴자는 꾸준히 나왔지만 시장 붕괴는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 ‘누가 시장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일부는 “의미 있는 규모의 401(k)를 보유한 사람은 주로 부유층이며 이들은 주

세대별 평균 401K 투자액

세대	평균 401k 투자액
베이비붐 세대	239,600달러
X세대	187,400달러
밀레니엄 세대	66,800달러
Z세대	13,900달러

식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하지 않는다. 상위 부유층이 매도를 시작하지 않는 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은 또 다른 변수다. 한 투자자는 “결국 자산은 누군가에게 상속될 것”이라며 부자 가정에서는 “이 주식은 팔지

말고 배당만 챙기라”는 조언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요양원 비용과 의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이용자는 “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4년 반 동안 35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가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경우,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보다 시장 구조 변화가 더 큰 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알고

리즘 매매와 기술 기반 투자, 해외 자금 유입 등 현재 시장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도 젊은 세대의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밀레니엄 세대는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시작했고 Z세대는 더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가 실제로 마지막 주자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를 두고 한 레딧 이용자는 “이런 우려는 401(k)가 도입된 이후 10년마다 반복되는 얘기”라며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프링 롯데 아울 센터(11-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 찰리타운(11-mar)과 찰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좀비딸·야당 감독 모두 “영화? 김성수 감독에 배웠죠”

한국영화계 ‘김성수 사단’ 시대
‘좀비딸’ 필감성·‘야당’ 황병국 감독
김성수 감독 연출부서 ‘동고동락’

‘광해’ 추창민·‘파묘’ 장재현 등
천만 영화 감독들도 김성수 사단

452만 관객(18일 현재)을 모으며 올해 최고 흥행 영화가 된 ‘좀비딸’, 그 전까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자리를 지켜온 ‘야당’(337만 관객).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

‘좀비딸’의 필감성(48) 감독, ‘야당’의 황병국(57) 감독 모두 ‘서울의 봄’ 김성수(64) 감독의 예전 연출부를 거친 제자 출신이다. 특히 정우성·장쯔이 주연의 사극 영화 ‘무사’(2001) 촬영 때 중국 사막의 모래 먼지를 삼키며 고생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무사’ 촬영 현장은 유해진·정석용 등 조단역 배우들이 영화에서 빨리 죽어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랄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었다. 그 때 김 감독과 동고동락했던 두 제자 감독이 올해 할리우드 외화의 파산 공세 속에서 함께 흥행작을 일궈내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

김 감독은 ‘좀비딸’, ‘야당’의 GV(관객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제자들의 작품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좀비딸’ GV에 앞서 김 감독과 필 감독을 함께 만났다.

김 감독은 “사춘기 딸, 고양이, 씩씩한 어머니가 영화에 나오는 걸 보고, 필 감

독 자신의 삶이 투영돼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환(조정석)의 화법, 냉소적 유머가 필 감독과 비슷하다”고 하자, 필 감독은 “어떻게 아셨냐.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무사’ 촬영 때 대학생(동국대 영화학과)이던 필 감독은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연출부에 발탁됐다. 그는 스크립트, 통역 뿐 아니라 편집에서도 재능을 발휘했다. 김 감독은 “원래 편집을 혼자 하는 스타일인데, 당시 필 감독의 재능을 발견해 함께 편집했다”며 “이후 ‘영화계에 천재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며 차승재 영화제작자, 유하 감독이 그와 함께 작업했다”고 말했다.

범죄 스릴러 ‘인질’(2021)로 성공적인 장편 데뷔를 한 필 감독은 “감독님은 ‘무사’ 촬영 때 매 쇼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고 들며,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며 “영화에 대한 태도를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감독의 첫 천만 영화 ‘서울의 봄’(2023)을 보고 “내가 데뷔한 날보다 더 기뻐다”는 필 감독의 말에 김 감독은 “영화를 보는 눈이 굉장히 간간한 필 감



김성수 감독이 제자 필감성 감독(위사진 왼쪽)의 ‘좀비딸’ GV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했다.



김성수 감독의 ‘무사’ 1 연출부에서 일했던 황병국 감독의 ‘야당’ 2과 필감성 감독의 ‘좀비딸’ 3.
[사진 싸이더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NEW]

독으로부터 장문의 축하 문자를 받고 정말 행복했다”고 답했다. ‘서울의 봄’을 보고 화가 난 관객들이 황정민이 고초를 겪는 영화 ‘인질’ 재개봉에 열광했다는 얘기에 들은 파안대소했다.

김 감독과 황 감독의 인연은 훨씬 더 깊다. 1986년 고(故) 유현목 감독이 만든 영화 모임에 각각 대학원생, 고교생으로 참가했던 둘은 ‘태양은 없다’(1999)부터 감독과 연출부로 합을 맞추기 시작했다. 황 감독은 ‘무사’에서 연출부 일은 물론, 여술(정우성)이 던진 창에 이마를 맞고 즉사하는 몽골 병사 역을 맡기도 했다.

전화로 만난 황 감독은 김 감독으로부터 리더의 자세를 배웠다고 했다. “대작 영화를 연출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감독님은 늘 맨 앞에서 독려하면서 끝까지 이끌고 간다”면서 “내가 감독을 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고 말했다. ‘서울의 봄’에 육군 소장으로 출연했

던 황 감독에 대해 김 감독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잘 끌어내는 연출가”라고 평했다.

황 감독은 ‘특수본’(2011) 이후 오랫동안 메가폰을 잡지 못했지만, ‘베테랑’(2015) 등에 조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김 감독은 “두 감독이 인내심을 갖고 공백기를 버텼기에 지금의 영광이 있는 것”이라며 “쫄쫄한 범죄 스릴러(‘야당’), 재미있는 가족 코미디(‘좀비딸’)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촬영 현장은 혹독하기로 ‘악명’ 높지만, 그를 거쳐간 감독들은 모두 스승과 동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로 스승보다 먼저 천만 감독이 된 추창민 감독(‘태양은 없다’ 연출부), ‘범죄도시’(2017)의 강윤성 감독(‘영어완전정복’ 연출부),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의 김태준 감독(‘감기’ 연출부)도 김성수 사단으로 분류된다.

천만 영화 ‘파묘’(2024)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황병국·추창민 감독의 연출부 출신으로, 김 감독 제자의 제자인 셈이다.

정현목 문화선임기자

한국서 만나는 세계 무용수의 몸짓

22일 창무국제공연예술제 개막
일본의 산카이 주쿠 등 무대 올라
내달 10일부터 서울세계무용축제

일본 대표 안무단체인 산카이 주쿠를 비롯해 네덜란드·스페인·자메이카 등 다양한 국적 출신 안무가들의 작품이 국내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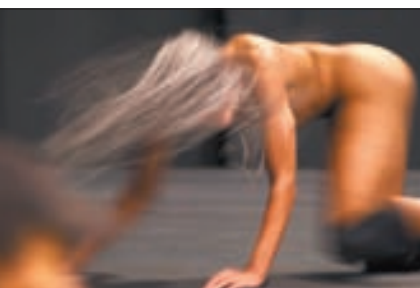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오는 22~30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포스트극장, 세종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대지의 목소리’다. 김매자 집행위원장은 “세계 무용수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할 시기라고 생각해 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 받는 공연은 일본의 대표 안무단체인 산카이 주쿠의 ‘코사’다. 지난 2022년 창작된 코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견디며 미래를 내다보고 세상을 재건하는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네덜란드의 신에 안무단체 ‘콜렉티프 맘’은 춤과 서커스를 결합한 ‘섬심 엘스’를 선보이며 처음 한국 무대에 오른다. 한국 안



창무국제공연예술제에서 주목하는 일본 대표 무용단체 산카이 주쿠의 ‘코사’(왼쪽사진)와 노르웨이 자메이카 출신 안무가 하랄 베하리의 ‘바티 보이’



[사진 산카이주쿠·세계무용축제]

무단체 중엔 조운라발레단과 백연발레프로젝트, 안다미로아트컴퍼니 등이 창작 작품을 들고 이번 축제에 나선다.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 본부가 주최하는 제28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시댄스)는 다음 달 10일부

터 28일까지 서울남산극약당,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한국 포함 13개국이 참가해 3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노르웨이와 자메이카 혈통 안무가 하랄 베하리의 ‘바티 보이’, 스페인 ‘안토니오 루스 무용단’의 ‘파르살리아’, 이란 출신 안무가 아르민 호크미의 ‘쉬라즈’ 등이 기대작이다. 벨기에-한국 국제합작 프로그램인 ‘SOIT/한스 판 덴 브룩×김영미댄스 프로젝트’, 한국의 ‘무트댄스’와 헝가리 무용단 ‘죄르 발레단’의 합작 프로젝트 등도 선보인다.

하남현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서울 미곡 한방병원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한국 농구대표팀 이현중(오른쪽)이 아시아컵 레바논전에서 슛을 쓰고 있다. 그는 28점을 몰아치며 8강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다. [사진 FIBA]

이강인 선발... 프랑스 리그1 ‘코리안 더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새 시즌 개막전에서 성사된 ‘코리안 더비’에서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PSG)이 권혁규, 홍현석이 첫선을 보인 낭트에 꺾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PSG는 17일 프랑스 낭트의 스타드 라 보주아르에서 열린 2025-2026시즌 프랑스 리그1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2분 터진 비티나의 결승 골로 낭트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최근 4시즌 연속 우승팀인 PSG는 리그1 5연패를 향한 도전을 승리로 시작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한국인 선수 세 명이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는 ‘코리안 데이’가 펼쳐졌다.

PSG의 미드필더 이강인은 선발 출전해 61분을 뛰고 0-0으로 맞선 후반 16분 데지레 두에와 교체됐다. 지난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22분 교체 투입돼 만회 골을 터트리고 2-2 동점을 만드는 데 발판을 놓아 결국 PSG가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이강인은 2경기 연속 출전했다.

낭트의 수비형 미드필더 권혁규는 선발 출전해 79분을 뛰었고, 벤치에서

PSG, 개막전 낭트에 승리
권혁규·홍현석 출전 관심



17일 PSG와 경기를 가진 낭트에는 권혁규(위 사진), 홍현석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시작한 미드필더 홍현석은 후반 14분 투입돼 PSG 이강인이 교체될 때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럽 빅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세 명이 함께 그라운드에서는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전반 9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권혁규가 걷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지난달 셀틱(스코틀랜드)에서 완전 이적한 권혁규와 마인츠(독일)에서 임대로 합류한 홍현석에게 이날 경기는 낭트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공식전이었다. 축구 통계 전문 풋덱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 92%(62회 중 57회)에 기회 창출 3회, 슈팅 2회 등을 기록했다

권혁규는 패스 성공률 73%(15회 중 11회)에 차단 3회, 지상 볼 경합 성공률 100%(3회) 등을 기록했고, 홍현석은 한 차례 슈팅과 패스 성공률 71%(7회 중 5회) 등의 성적을 남겼다.

PSG는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후반 22분 누누 멘데스의 패스를 받은 비티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으로 들어가 승부를 갈랐다.

후반 31분 곤살루 하무스의 골은 비디오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임성재 ‘PGA 왕중왕전’ 7년째 개근

페덱스컵 랭킹 28위 기록
30명 출전 최종전 합류



임성재(27·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시즌 최종전이자 왕중왕전 격인 투어 챔피언십에 7년 연속으로 출전한다.

임성재는 17일 메릴랜드주 오웬스 밀스의 케이브스 밸리 골프클럽에서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쳤다. 전반에는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기록해 3타를 줄였지만, 후반에는 버디 하나와 보기 하나로 타수를 더 줄이지 못했다. 최종합계 10오버파의 임성재는 출전 선수 49명 중 공동 4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결과로 당초 25위였던 임성재의 페덱스컵 랭킹은 28위로 세 계단 내려갔지만, 상위 30명에게 주어지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은 지켜냈다. 지난 2019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시즌 최종전 무대를 밟는다.

투어 챔피언십 참가자는 다음 시즌 메이저 대회 및 시그니처 이벤트를 출전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PGA 투어 무대에선 투어 챔피언십 출전 여부를 ‘톱 클래스’인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긴다.

김시우(30)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합계 이븐파로 임성재보다 높은 공동 19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41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을 37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그쳐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세계 1위이자 페덱스컵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29)가 차지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5언더파를 기록했다. 1~3라운드 선두였던 로버트 매킨타이어(29·스코틀랜드)를 2타 차로 제쳤다. 셰플러는 시즌 5승, 통산 18승이 됐다.

지난해 페덱스컵 우승자 셰플러는 다음 주 투어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를 공동 12위(최종합계 3언더파)로 마친 로리 매컬로이(36)도 페덱스컵 랭킹 2위 자격으로 최종전에 나선다.

투어 챔피언십은 오는 21일부터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페덱스컵 랭킹 기준으로 상위 순위자에게 보너스 타수를 줬지만, 올해부터는 출전자 30명이 똑같은 이븐파에서 출발한다.

송지훈 기자

승률 1위 밀워키 14연승에서 제동

메이저리그(MLB)에서 승률 1위를 질주 중인 밀워키 브루어스의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밀워키는 1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서 연장 10회 접전 끝에 2-3으로 패했다. 밀워키는 구단 신기록인 14연승을

달리다 첫 패배를 당했다. 이날 밀워키는 0-1로 뒤진 9회초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투런 홈런을 날려 2-1로 역전했다.

그러나 신시내티는 9회말 호세 트레비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말 오스틴 헤이스가 끝내기 안타를 날려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내셔널리그(NL) 중부지구 1위인 밀워키는 연승 행진이 중단됐지만 78승 45패, 승률 0.634를 찍어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률 6할을 기록 중이다.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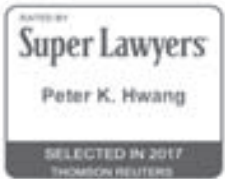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8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Yong Choi 703-626-7370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구인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 ~ 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험자가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사실분
일요일 가능한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폴타임, 엘리컷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사실분
일요일 가능한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시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합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 렌트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

한 싱글홈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중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펙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한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폴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폴타임 가능
703-258-435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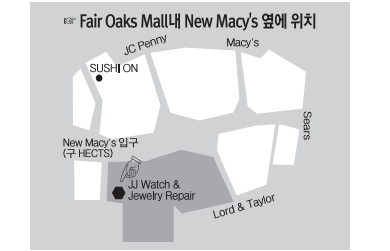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중앙일보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면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굴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 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티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티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애난데일 앤드 유닛 타운홈 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덕넉,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연 사진 보여드립니다 703-395-4380 브리스토(게인스빌 옆)타운 하우스 렌트, 앤드 유닛, 방 3, 화 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맥,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 3, 화 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츠,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맥,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톤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2, 화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앤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495와 395가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테리어/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피스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 4, 화 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 4, 화 3 ▶301-318-4242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여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 집같이 아주 멋지 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쁜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오순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 2, 5000sqft 모던 디자인 2. 첼트리 하이 싱글하우스 \$1,050,000 방4, 화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 드, 286/50 Lees corner RD 3.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7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571-239-6054 애난데일 싱글 하우스 \$719,000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 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 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 높음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5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Triangle 타운콘도 \$429,900 2024년 built, 방3, 화5, 4층 구조, Gagage, 고급스러운 부엌, 아일랜드, 나무마루, 새 페 인트, 새 맥 ▶703-813-8949
---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자이언트 부동산 제니 지: 571-277-7758
insunchi@yahoo.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교, 딜레스 공향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트,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국토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교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703-231-5572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잇,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델리산(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예정 상버 운영하면서 투자용, 안정된 수입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트/현돈 지역)
-\$100,000
-현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감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한 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구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오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리치원 메디케어/메디게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래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와퍼 시스템,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링 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박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 / 디스포저

◆워터히터 / 물새는것

◆하수막힘 / 변기교체

◆씽크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tella: Let’s cross the street,
스텔라: 길 건너자.
Sadie: But the restaurant is on this side of the street,
세이다: 하지만 식당은 이 쪽에 있어.
Stella: I know but see that woman in the yellow dress
walking toward us?
스텔라: 알아. 한테 저기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노
란 옷 입은 여자 보여?

Sadie: Yeah. Do you know her?
세이다: 응. 아는 사람이야?
Stella: Yes and I don’t want to run into her.
스텔라: 응. 마주치기 싫어.
Sadie: What’s the mystery?
세이다: 무슨 사연인데?
Stella: I used to run around with her.
스텔라: 한때 나하고 꼭 붙어 다니던 사이였어.

Sadie: Are you going to tell me the rest of the story?
세이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마저 얘기를 해봐.
Stella: She caused my boyfriend and I to break up.
스텔라: 저 여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Sadie: She probably did you a favor,
세이다: 네가 바라던 대로 해준 거네.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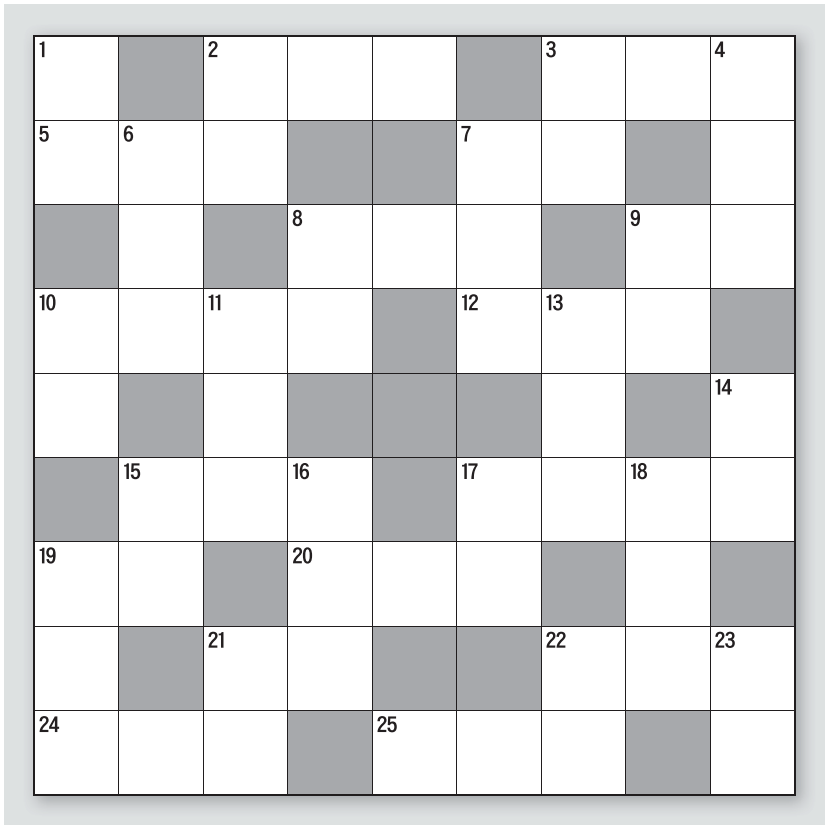
run around with(someone):(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다

(Stella and Sadie are walking on a crowded street…)

(스텔라와 세이다가 인파로 북적대는 거리를 걸으며…)

▶ run into (someone): (누구를)우연히 만나다.
“I ran into Tom Cruise last night.” (어젯밤에 우연히
탐 크루즈를 봤어.)
▶ break up: 헤어지다.
“Debbie and I broke up five years ago.”(데비하고 나
는 5년 전에 헤어졌어.)
▶ to do (someone) a favor: (누구의) 부탁을 들어
준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2)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3)아
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흥
내를 내며 노는 짓 (5)암탉이 혼자서 땅바닥에
대고 몸을 비비적거림. 땅을 헤집고 들어앉아 흙
감태기가 되어 ~을 하던 닭들이 날개를 푸드덕
거리며 길을 비켰다 (7)그을음이나 연기가 맺혀
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 (8)앉거나 누워서 두
다리를 내뻗었다 오므렸다 하며 몸부림치는 일
(9)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 ~에 찬 젊은이 (10)병이 들어서
자리를 깔고 꼼져누움. 몇 달째 병석에 누워 ~을
하고 계신 아버지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 (12)어
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여 이르는 말 (15)
앞가슴에 흰 무늬가 있으며 겨울잡을 잔다 (17)
살결이 깨끗하고 고운 미인. 눈처럼 투명한 ~의
살결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 주었다
(19)광산 탐사, 지질 조사 등을 위하여 땅에 깊
숙이 구멍을 뚫음 (20)소리를 막기 위하여 설치
한 벽 (21)윗사람으로 떠받들 (22)가오리의 새
끼 (24)명태의 장자를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
(25)절반이 넘는 수

세로열쇠

(1)아무것도 잡지 아니한 땅바다. 무모한 일에
도전할 때 ~에 헤당한다고 하죠 (2)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3)술을 덮는 뚜껑. 자라 보고
놀란 가슴 ~ 보고 놀란다 (4)공연히 마워하고 깽
아내리려 하는 마음 (6)수평은 장끼, 암평은? 우
여우여 허허 ~ 사냥을 나간다(~ 타령) (7)털빛
이 검은 개. 아가야 나오나라 달맞이 가자/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야 너도 가자 냇가
로 가자 (8)전기를 일으킴 (9)밤중에 먹는 음식
(10)암컷과 수컷. 승부, 우열, 강약 따위. ~을
겨루다 (11)음력 15일 밤에 뜨는 둥근달 (13)둥
글넓적하고 아카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에
다 바지락을 쏟아 담고 주무르기 시작했다 (14)
소의 네 다리째. 몸을 보신하는 데 쓴다 (15)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되새김 (16)
짧은 담뱃대 (17)얼음이나 눈에 덮인 낭떠러지
(18)옥같이 잘생긴 사내아이 (19)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 (21)
가을철에 잡아서 담근 새우젓 (22)습기를 빨아들
인 소금에서 녹아 나오는 쓰고 짠 물 (23)약하게
부는 바람

스도쿠

						5		
2			4			1		
		7			6	8		3
		5	6	8		7		4
	9	3			7			
	7	6	1		2			
9				6		3	2	1
			9	5	1	4		7
					4	6	9	5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5	6	9	7	2	3	1	8	4
4	8	7	1	5	6	2	9	3
1	2	3	8	9	4	7	5	6
8	5	6	2	3	1	9	4	7
9	1	2	4	7	5	3	6	8
7	3	4	6	8	9	5	2	1
3	7	8	9	6	2	4	1	5
6	9	1	5	4	7	8	3	2
2	4	5	3	1	8	6	7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카드 번호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Liberty www.worldpay.com
BANKCARD worldpay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Worldpay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 Liberty Bankcard

WORLDPAY와 함께한 29년의 신뢰

✓ 전 세계 175개국, 2M 가맹점 서비스

✓ 연간 55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업계 1위

3대 핵심 서비스 제공

1. 업계 최저·투명한 수수료

2. 최신형 POS 단말기 무료 제공

3. 최고 수준의 기술, 고객 서비스

지금 전화하세요! (424) 332-3779

www.worldpay.com info@libertybankcard.net

Powered by Worldpay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애틀랜타

구인

일본식당 구인
*하바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례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삼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지긋한 통증과 중풍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를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박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박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832) 605-4890 · (281) 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척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